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배비장전>의 형성과 훼손 양상 고찰

A Study on Pattern of Forgoing and Background
of <Baebijangjeon>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홍진주

석사학위논문

<배비장전>의 형성과 훼손 양상 고찰

A Study on Pattern of Forgoing and Background
of <Baebijangjeon>

지도교수 정병헌

이 논문을 국어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6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홍진주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
2. 연구사 검토	4
II. <배비장전>의 형성 동인	6
1. 시대상 반영	6
2. 남성훼절설화의 수용	11
III. <배비장전>의 인물 훼절 양상	18
1. 속내 숨기기와 위선 들춰내기	22
2. 체제 유지하기와 질서 무너뜨리기	40
IV. <배비장전>의 문학사적 의의	54
V. 결론	56
참고문헌	59
ABSTRACT	63

국 문 초 록

<배비장전>은 구비·문헌 설화집에서 일찍부터 소설화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작품이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남성혜절형이라고 하는 서사적 유형은 구비·문헌 설화를 비롯하여 판소리와 소설에 두루 나타났다. 이러한 남성혜절형은 주로 양반이 여색에 초연하고자 하나 결국 주변 인물들과 기생이 공모하여 기생의 유혹으로 혜절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어 망신을 당하는 내용이다.

<배비장전>은 대표적인 남성혜절형에 속하는 작품으로 풍자, 작품의 구조, 특정 인물에 대한 연구가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의 한계에서 나아가 인물을 통한 혜절 양상을 중점으로 <배비장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형성 동인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는 양친체제에서 점차 양반, 중인, 상인, 천인으로 네 개의 계층이 분화되었다. 양반층의 경우, 지배구조의 모순으로 양반계층의 신분 분화가 심화되었고 권력층과 몰락 양반이 양극화되어 일부 양반의 지위가 하락되고 있었다. 또한 조선 왕조의 지배층인 사대부와 비슷할 정도로 지식인층인 중인 계층의 모습도 나타났다. 하급 행정실무를 담당하거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중인 계층의 등장으로 양반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위기를 느끼고 기존 양반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결핍, 사회적 박탈감, 자신들의 독선과 독단을 위한 개인적인 권력을 중인계층에게 남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또한 작품에 나타나는 중인층의 모습은 ‘비장이라는 말단 하급 관리도 지식인층과는 거리가 먼 부패한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배비장전>에서 상류 계층과 중인 계층의 모습이 타락한 관리들의 모습과 집단을 고수하고 숨기려는 양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반면에 하층민의 모습은 체제를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즉 제주 목사, 정비장, 배 비장이 전자라면, 후자는 방자와 기녀 애랑인 것이다. 애랑의 경우는 신분상의 변동으로 기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양반 계층에게 도전하고

저항하는 모습은 기존의 지배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애랑이 정비장과 배 비장에게 들춰내는 모습들은 하층민의 사회적 신분에서 지위가 상승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서민들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남성혜절설화와의 수용이 <배비장전>의 형성 동인이라고 보았다. <배비장전>의 근원설화인 <기룡장백>, <발치설화>, <미케설화>가 주요 모티프가 되고 있다. 양반층이 여색에서 초연해지려고 하나 결국 혜절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남성혜절설화 및 소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격적으로 <배비장전>의 인물을 통한 혜절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개인적 차원에서는 속내 숨기기와 위선 들춰내기를 인물의 구도로 나눌 수 있었다. 자신을 구대정남이라고 자처하는 배 비장은 제주 목사가 마련한 주연 자리에 일탈하게 된다. 관리로 대표되는 배 비장을 기녀 애랑 및 방자가 위선을 들춰내는 과정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적 차원으로 체제 유지하기와 질서 무너뜨리기의 양상으로 보았다. 제주 목사와 정비장 및 배 비장의 구도로 혜절 양상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이상으로 <배비장전>의 형성 동인과 인물을 통한 혜절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인물을 통해 조선 후기 민중들이 지배층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배비장전>은 부패한 관료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개인을 초월한 당대의 관료 문화를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배비장전>의 문학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사회의 모습을 수용하고 있고, 변화를 필요로 한 시기에 문학적으로 형상화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조선 후기는 사회·문화적으로 소설에 있어서 큰 변혁기였다. 한글의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평민들의 창작활동이 가능해졌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재의 원천도 다양해지고 기존에 고수해오던 소설의 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다. 결국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식과 경험의 확대로 기존 고소설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남성훼절형이라고 하는 서사적 유형의 출현을 들 수 있다. 남성훼절형은 특히 구비·문헌 설화를 비롯하여 판소리와 소설들에 두루 나타났다. 즉, 양반이 여색에서 초연하고자 하나 기생과 주변 인물들의 공모로 인해 기생의 유혹으로 훼절당하는 이야기다. 결국 이러한 유형들은 주인공이 웃음거리가 되어 망신을 당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조선 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이념인 남녀 관계가 엄격했고 여색에 대해 관점에 달랐던 삶의 시각을 문제삼아 남성훼절소설¹⁾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의 유형으로는 <배비장전>, <삼선기>, <오유란전>, <정향전>, <종옥전>이 여기에 속한다.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살펴보면 남성 훼절의 화소를 다루고 있고, 작품에 구조와 인물설정, 세계관의 지향에 대해 동질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

<배비장전>은 창을 잃은 판소리이다.³⁾ 19세기의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판소리 다섯마당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7마당 중에 하나다. 19세기 초엽에 <배비장전>이 판소리의 형태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처음에는 발치설화를 위주로 이루어졌다가 송만재가 <관우회>를 지을 시기인 19세기 중엽에 <발치설화>와 <미궤설화>가 모두 들어있는

1)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김기동은 남성훼절담이라 지칭하고 있고, 이원수, 여수주에 의해 훼절형소설, 정남훼절소설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2)여세주, 「조선조 남성훼절소설의 형성과 변이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0, 8쪽.

3)김종철,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233쪽.

<배비장타령>을 불리었으리라는 것이다.⁴⁾ 결국 <배비장타령>은 19세기 말 창을 잃은 판소리와 함께 길을 잃게 되지만 창극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창극 <배비장전>을 각색하기도 하였다.

<배비장전>은 사대부의 문헌 소화집과 기타 설화의 발굴로 일찍부터 설화의 소설화 가능성이 연구⁵⁾되어 왔다. <기룡장백>, <발치설화>나 <미귀설화>는 <배비장전>의 근원설화로 알려져 있어서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양반의 호색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다른 남성혜절소설인 <지봉전>, <정향전>, <종옥전>, <오유란전>, <삼선기>와 크게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배비장전>⁶⁾은 여색에 초연해지려 하나 결국 기생에 의해 양반이 혜절 당하는 구조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혜절되는 과정에서 주인공인 배비장이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혜절의 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배비장전>의 형성 동인과 아울러 인물을 통해 혜절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배비장전>에서 인물은 중요한 요소이다. 인물이라는 구성요소는 비단 소설뿐만 아니라 문학 장르 전반에 걸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인물을 통해 사회를 반영하고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배비장과 정비장을 비롯한 하급관리의 모습, 양반이 기생인 애랑을 통해서 현혹되고 양반인 배비장이 알비장이 되어 궤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 제주 목사가 배비장을 향한 집단체제에 대한 시선들은 배비장이 혜절을 겪으면서 각각의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혜절 양상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배비장전>의 혜절 양상을 고찰하되, 인물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II장에서는 <배비장전>의 형성 동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배비장전>이 형성된 원동력으로 첫째, 시대 상황의 반영을 들 수 있다.

4) 정충권, 「배비장타령 재고」, 『고전문학과 교육』 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226쪽.

5)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장덕순, 『한국 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6) <배비장전>은 75장의 전사본(傳寫本) 중 59장까지 수록된 것을 선본으로 삼고, 정병헌·이지영의 『새즈르본 흥부전·배비장전』에 수록된 <배비장전>을 인용할 것이다. 아울러 신구서림본에만 덧붙여 있고 김삼불본에는 신구서림본의 결말부분이 삭제되어 있어서 내용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조선후기 사회는 기존에 추구하고 있던 이념이 뿌리 채 흔들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혁이자 혼란기였다. 이러한 사회상이 <배비장전>에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남성훼절설화와의 수용이다. <배비장전>이 남성훼절설화를 통해 어떠한 관계를 띠고 있는지 중점을 둘 것이다. 두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과 사회 제반 구조의 변화의 물결이 조선이 지향하고 있었던 <배비장전>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생각하여 <배비장전>의 형성 동인으로 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II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훼절 양상 따른 인물을 살펴 볼 것이다. 훼절 양상을 서사적인 구조가 아닌 <배비장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훼절 양상에 투영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인물의 훼절 양상과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인물들이 훼절되는 양상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배비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훼절양상을 그리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II장과 III에서 논의한 바탕으로 인물을 통해 드러나는 훼절 양상을 바탕으로 <배비장전>이 지니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권력의 남용과 집단 체제 유지, 신분질서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훼절의 소재를 문학적 기교인 풍자, 해학으로 나타냈다는 점, 남성훼절설화를 모티브로 등장했으나 꾸준히 문학사에 영향을 지니지 못하다가 판소리에서 판소리계 소설을 통해 훼절이라는 대담한 소재를 다루었다는 차원으로 <배비장전>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배비장전>의 형성과 인물을 통한 훼절 양상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연구사 검토

<배비장전>은 정남을 자처하던 남자가 훼손 후 드러나는 모습을 그려 웃음을 유발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지봉전>, <정향전>, <종옥전>, <오유란전>, <삼선기> 뿐만 아니라 <강릉매화타령>, <무숙이타령> 등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훼손을 다루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특히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배비장전>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많이 연구되었다. 크게 풍자와 작품의 구조에 관한 논의, 인물에 대한 연구가 주로 논의되었다.

첫째, <배비장전>을 ‘풍자’와 관련해서 논의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서사의 중심축인 훼손사건을 통해서 작품 내에 이질적인 풍자의미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애랑과 방자, 목사와 비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가 결국은 부패한 관료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⁷⁾ 또한 하층민에 대한 지배층의 위선,⁸⁾ 양반 관원의 가렴주구와 호색기질의 폭로⁹⁾, 관인사회의 신참제를 주목¹⁰⁾하거나, 수탈 계층에 대한 저항과 복수로까지 나아가는 연구¹¹⁾도 있었다.

또한 <배비장전>을 풍자층위의 측면에서 파악한 논의도 있었다. 풍자층위를 세 가지로 파악하고, 제주 목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양반위선의 풍자, 해녀와 뱃사공이 양반에게 냉소적인 풍자로 풍자의 스펙트럼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풍자가 가능한 것은 판소리 문학이 여러 계층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²⁾

둘째, 작품의 구조에 관한 논의가 있다. <배비장전>을 크게 A영역과 B영역으로 나누고 A영역에는 제주 목사와 정비장, 배비장을, B영역에는 애

7) 김영주, 「배비장전의 풍자구조와 그 의미망」, 『판소리 연구』 25, 판소리학회, 2008.

8) 한홍기, 「배비장전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한효석, 「배비장전의 풍자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윤풍광,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풍자성 고찰: 배비장전, 오유란전, 이춘풍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권영석, 「조선후기 소설의 풍자성 연구: 양반전과 배비장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9) 이석래, 「배비장전의 풍자구조」,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일조각, 1978.

10) 권두환, 「배비장전연구」, 『한국학보』 5, 일지사, 1979.

11) 김용희, 「배비장전의 주제에 대하여」, 『진단학보』 53·54, 진단학회, 1982.

12) 권순금, 「배비장전의 풍자층위와 역사적 성격」, 『반교어문연구』 7, 반교어문학회, 1996.

랑과 방자로 규정하고, B영역에 속한 집단이 상승하는 구조를 취한다고 보았다.¹³⁾

대부분의 연구는 하층민에 의한 지배층의 위선과 호색성이 폭로되면서 풍자되고 있다는 통일된 논의로 진전되어 왔다. 조금 더 새로운 초점에서 <배비장전>의 논의된 경우는 배비장의 훼손 사건 이면에서 가능한 제주 목사의 초점에 맞추어 역시 풍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¹⁴⁾가 새롭게 떠올랐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제주 목사에 대한 표현을 세대에 대한 풍자적 표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정도로 언급하는데 그쳐 본질적인 풍자적 의미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배비장전>의 등장 인물에 대한 연구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민층인 방자만을 크게 부각¹⁵⁾시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배비장전>의 풍자구조에서 이제까지 논문들이 주로 방자의 역할에 주력해 온 데 반해 처음으로 배비장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풍자구조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매우 진보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¹⁶⁾. 그러나 기존의 방자 중심의 인물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거나 훼손중심의 사건을 통한 <배비장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결국 기생인 애랑을 사이에 두고 정비장과 배비장의 훼손 양상 구도와 방자, 기생 애랑, 제주 목사 인물들 사이에 갈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고리를 논의한 것은 풍자성에 입각하여 표면적인 논의에 그치는 논문들이 많았고, 인물을 통한 훼손 양상을 논의할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인물을 통한 훼손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3)이석래, 「배비장전의 풍자구조」,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일조각, 1978.

14)최혜진, 『핀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 2000.

15)정승열, 「배비장전 연구: 희극적 상황 중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16)이석래, 「배비장전의 풍자구조」,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일조각, 1978.

II. <배비장전>의 형성 동인

남성혜절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사적 유형은 많은 설화를 비롯하여 판소리와 소설들에 두루 나타나는 서사양식으로서 조선조 서사문학사에 있어서 하나의 모습이다. 이때 ‘남성혜절담’이란 용어는 남성혜절형의 설화, 판소리, 소설을 통괄하는 말이다.¹⁷⁾ 그러므로 남성혜절설화는 크게 남성혜절담과 같은 의미로 인식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 ‘남성혜절유형’은 기녀의 속임수에 의한 남성의 혜절 화소를 서사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면서 일정한 유형구조를 지니고 있는 작품군을 지칭하는 말¹⁸⁾로도 통용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남성혜절설화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배비장전>의 형성 동인을 살펴보면 있어서 작품에 나타난 당대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아울러 일정한 혜절화소의 유형을 지니고 있는 서사구조 중에서 특히 남성혜절설화에서 비롯하여 소설로까지 영향을 미친 <배비장전>과 남성혜절설화와의 수용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시대상 반영

조선 사회는 17세기부터 농업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농업방식의 변화, 생산량의 증대, 상업의 발달함에 따라 부농 계층이 떠오르게 되었다. 부의 축적으로 새로운 평민지주가 등장하고 상업 부문에 있어서는 공인들이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여 독점적 도매상이 성행하게 된다. 조선 후기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로 농업과 수공업 및 광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¹⁹⁾ 이로 인해 상품 생산이 상업의 발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상업의 발달은 화폐사용에도 영향을 끼쳐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세금을 돈으로 내게 되고 점차 자금자족 경제체제가 급속히 해체되어 가는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갔다.

결국 17세기 이후, 조선 사회의 경제구조는 전반적으로 시대 흐름의 물결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내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즉 기존

17)여세주, 『남성혜절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8쪽.

18)여세주, 위의 책, 9쪽.

19)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연구』, 월인, 328쪽.

에 추구하던 신분제도가 뒤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조선후기 신분제도의 구조가 서서히 변화되는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초기에는 양천체제였으나 점차적으로 양반, 중인, 상인, 천인으로 네 개의 계층으로 성립되었다.²⁰⁾ 양인이 양반, 중인, 상인으로 분화되었다. 특히 중인은 양반도 아니고 상인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에서 있는 신분계층이었다. 조선사회에서 좁은 의미의 중인은 의역중인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 중인을 지칭하였으나 넓은 의미의 중인 계층은 서얼, 기술직 중인, 그리고 서리층을 포함하고 있다.²¹⁾

먼저 양반의 경우, 지배구조의 모순으로 인하여 양반계층의 신분 분화가 심화되었고 권력층과 몰락 양반이 양극화되어 일부 양반의 지위하락이 조선 후기에 가속화되어가고 있었다. 양반은 여전히 권력의 핵심부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관직에서 소외된 양반이나 경제력을 상실한 양반들도 있었다. 특히 몰락한 양반은 실질적으로 가난한 평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에 사회·경제적인 조건으로 인해 양반의 권위의식을 고수하기가 어려웠다. 양반층은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여 서민과의 격차는 좁혀지기 힘들었다. 더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신분상 주로 양반이기는 하나 주로 무능한 가장의 모습으로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존재가 양반의 전형이었다.

중인계층은 조선왕조의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와 비교해도 무색할 정도로 하급 행정실무를 담당하거나 전문직을 갖고 있어서 지식인층이자, 시대의 부름을 받은 계층이었다. 이러한 중인층의 등장으로 양반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위기를 느끼고 기존 양반이 가지고 있던 질서가 붕괴됨에 따라 자연스레 양반들은 경제적 결핍과 사회적 박탈감, 상층 양반 계층의 독선과 독단 그리고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권력의 남용 등 사회 징후를 보이게 된다.

<배비장전>에서 배 비장과 정비장의 ‘비장’ 직위는 말단 행정관리인 서리층을 포괄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신분이 중인계층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양반과 하층민의 중간자적 관계에 놓여 있으나 작품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층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주로 양반 밑에서 하층민과의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역할로 뇌물에 눈이 멀고 부정한 행위를

20)정옥자, 『조선후기 중인문화연구』, 일지사, 2003, 143쪽.

21)정옥자, 위의 책, 16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사회적 위치로서의 중인계층과 <배비장전>에 등장하는 중인계층의 모습이 다름을 알 수 있고, 조선 후기 관료들의 부패상을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 목사로 대표되는 상류층은 비장이라는 하급 관리를 자신들의 체제 속에서 배 비장과 정비장을 배제하려고 한다. 이는 양반층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여 독단적인 행동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절대적인 불변의 법제로 지탱될 것만 같던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하층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상류층인 양반계층이 흔들리고, 역으로 양반층은 기존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낳고 있다. 결국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을 <배비장전>을 통해 보여주되, 배 비장과 제주 목사라는 두 인물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꾸준히 관행으로 되었을 것을 유지하려는 성향과 지배층의 간섭에서 벗어나 명을 어기면서 일탈하려고 하는 중인들의 몸부림을 간접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분제도의 붕괴로 인한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병폐를 안겨주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배비장전>에서 상류계층과 중인계층의 모습이 타락한 관리들의 모습과 집단을 유지하려는 양반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방자와 기녀 애랑으로 대표되는 하층민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분제도의 변동으로 인해 기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작품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주인공은 남성이며, 그 남성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둔 작품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인물은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남성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에만 그쳤다. 주로 양반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작품들이 등장했으나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사회·문화, 경제, 계층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큰 변혁을 겪게 되자 자연스럽게 하층민들에게도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인물이 <배비장전>에서 기녀 애랑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기생의 경우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양반 남성과 어울릴 수 있는 특수한 위치였기 때문에 양반 계층에 진입할 수 있는 계층이었다.

기녀는 조선시대 이익의 <성호사설>이나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서 기녀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는데 양수척이라고 유기장을 일컬으며, 관적이나 부역의 의무가 없었다. 또한 이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떠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유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존재였다. 그리하여 이들을 적에 올리되, 여자의 경우 기적에 올린다. 남자는 ‘노’로 여자는 ‘기’로 계속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²²⁾ 기녀라는 신분층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양반들의 풍류의 대상으로 진입하는데 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가나 지방 관청에 소속된 천민으로서 양반들의 풍류와 향락의 수단으로 각종 행사에 동원되었다. 기녀는 시, 서, 화, 무 등 다방면으로 실력을 쌓아야만 했고, 실력을 갖추어서 양반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도 했다. 자신의 감정을 시로 남기기도 했다. 기녀는 양반 권력층과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다른 천민과는 다른 삶을 사는 계층이었다. 그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기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기녀 제도의 정확한 확립은 알 수 없지만 조선 시대만 살펴보더라도 조선 초기 세종 때 기녀를 국가 행사나 왕실의 풍류로 쓰기 위해 정비된 기녀제도가 등장하면서 기녀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기녀는 양반과의 관계가 명실상부하게 인정되었다. 원칙적으로는 기녀제도가 금기시 되었지만, 당시 우수한 재능과 미모를 겸비하고 있었던 계층이기에 양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녀 역시 생계유지나 애정관계를 맺기 위해 양반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기녀의 원래 국가나 왕실에 있어서 여악을 위한 존재였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서울이나 지방의 관기 중에서 재주가 뛰어난 아이 기녀를 뽑아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다시 원래의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 보냈는데, 이러한 과정이 점차 지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녀제도가 양반 풍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는 고급예술을 가지고 있는 기녀들이 양반들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됨에 따라 기존에 기녀들을 양성했던 목적과는 달리 향락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반의 풍류생활은 기녀제도라는 특수한 천민제도에 의해서

22)정약용, 『여유당전서』 1, 다산학회, 경인문화사, 1970, 521쪽.

장기간 지속되어 조선 후기 신분변동과 사회 경제적으로 격변하는 격동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풍류생활이 지속되었다. 양반들의 풍류 대상이 되었지만 기녀는 본래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수할 존재가 변질되었던 당시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녀제도의 본질이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양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기존 기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풍류문화에 소멸해 버리는 역할이 아닌 양반계층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망신당하는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여성의 대표로서 시도하기조차 힘든 대상을 통해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하층민의 대표인 방자를 통해서 양반계층에게 도전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유교적 질서를 중요시하고 있는 조선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이는 곧 신분제도의 붕괴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층민들이 자의식의 각성과 함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양반에 대한 도전장을 내걸고, 망신을 주려는 모습에서 하층민의 사회적 신분의 지위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경직된 관념하에 이분법적으로 분류되었던 양천제도가 붕괴됨에 따라 하층민의 신분적 지위의 변동을 가져왔다. 하층민들의 자의식이 성장한 예로 민란이 대표적이다. 신분상승을 위한 운동,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운동 등이 모두 서민층의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기녀와 마찬가지로 방자도 천민집단에 속하는 부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반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계층에서 오는 반감을 조선 후기에 신분상의 변화로 인해 방자와 애랑은 한 걸음 더 양반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양반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주는 일들이 하층민이 양반에 대한 속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풍자하고 골려주는 대상은 언제나 상류층이며 주체는 하층민의 몫이었다. 그들의 세계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풍자하고 조롱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신분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자는 양반의 호색성을 풍자 대상인 배 비장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목욕하는 애랑의 모습을 보고 애랑의 집에 들어설 때까지 배 비장은 시종일관 방자에게 간청하는 행동

을 하게 되고, 방자는 그런 배 비장을 혼계하고 나무라는 언동을 보임으로써 상하관계가 이미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방자는 풍자 대상인 배 비장의 성격을 뚜렷하게 입체화시킴으로써 작품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천민의 신분인 방자는 상층의 약점과 모순을 샅샅이 알고 있다. 배 비장의 개인적인 면모가 아니라 배 비장을 통해서 대변할 수 있는 양반 계층의 속성을 방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배 비장은 방자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롱과 멸시의 대상일 뿐이고, 이를 통해 방자는 민중을 대표하여 양반에 항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녀가 기존의 양반의 노리개로 전락하는 모습만 <배비장전>에 등장했다면 신분제도가 흔들렸다고 볼 수는 없다.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 비장을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든 것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자의 경우는 기녀와 같은 천민 집단이기도 하지만 양반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계층이나 서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배꼽잡고 비웃음을 사는 것은 바로 하층민의 신분상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역으로 상류층은 농락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기녀인 애랑과 방자로 압축되는 하층민의 사회적 입지가 상승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사회상의 모습은 기녀로 대표되는 여성뿐만 아니라 방자를 포함한 하층민의 입지가 자리매김을 했음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사회적 변화를 리얼하게 반영함으로써 <배비장전>의 휘절사건에 한층 더 밀접하게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2. 남성 휘절설화의 수용

휘절담은 <어유야담> 소재 채수의 일화, <용천담적기> 소재 어느 재상의 일화, <동야휘집>의 미케설화, <실사총담> 소재 어느 어사의 일화 등 일화나 소담 형태로 여러 문헌에 등장²³⁾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휘절담들이 <지봉전>, <정향전> 등 소설에 전형적인 모티프가 되어 등장하게 되었다. <오유란전>, <중옥전>, <삼선기> 등의 소설에는 풍자적인

23)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382~394쪽.

신영주, 「정향전 연구」, 『인문과학연구』 3,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1334쪽.

성격으로, <배비장전>, <강릉매화타령>등으로 폭넓게 조선시대 문학의 한 전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소설들은 대부분 정남임을 스스로 생각하다가 기생의 유혹으로 훼손을 하게 되어 추하게 드러나는 모습들로 웃음을 유발하는 형식이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배비장전>은 훼손담과 관련이 있는데, 남성훼손설화자료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다. <어유야담> 소재 채수의 일화나 <용천담 적기> 소재 어느 재상의 일화, <동야회집>의 미귀설화, <실사총담> 소재 어느 어사의 일화나 소담으로 이 훼손담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설화가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종옥전>, <오유란전> 등의 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전>, <강릉매화타령> 등등 판소리에까지 폭넓게 형상화되어 있어서 남성훼손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로 이러한 남성훼손을 모티브로 하여 훼손 후에 드러나는 추한 모습을 과장적으로 그려 웃음을 유발하는 형식이다. 남성훼손설화란 용어는 ‘어떤 남자가 남의 책략에 속아 평소 지켜 왔거나 지키겠다고 하던 금욕적 절개를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말’²⁴⁾이다.

남성훼손설화에서 <배비장전>과 관련된 문헌설화를 살펴보면 <명경지해>의 <기룡장백>이 가장 이른 시기에 <배비장전>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발치설화>와 <미귀설화>에서 근원설화가 근간을 이루며 성립되었으며 <배비장타령>, <옹고집전타령>이 윤색 개작되어 고전소설 <배비장전>과 <옹고집전>으로 정착되었다.

먼저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하여 <배비장전>과 근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명엽지해>의 <기룡장백> 내용이다.

성종 때 원성 기생에게 미혹된 사또들이 많자 어떤 대관이 그들을 탄핵하였고, 자신이 강원감사로 제수되어 부임한 후에도 방기를 모조리 배척한다. 성종이 은밀히 목사에게 칙유하여 여색으로 그를 시험케 하니, 목사가 기녀를 뽑아 그를 훼손시키라고 지시한다. 기녀가 말을 풀어 영문의 국화를 뜯어먹게 한 후 소복을 입고 주마라 용서를 비니, 감사가 그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용서한다. 부동이 과부가 된 자기 누님이라고 속인다. 감사가 배 한 바구니를 들고 사례하러 온 여인을 이끌어 통정하니, 그날부

24)이원수, 「남성훼손설화의 실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21, 국어교육학회, 1989, 70쪽.

터 여인은 어두우면 들어와 새벽녘에 돌아간다. 그 여인이 사랑의 확인이라면서 자기 집으로 감사를 초청한다. 옷을 벗고 자리에 들었는데, 가짜 서방으로 위장한 통인이 나타난다. 여인이 시키는 대로 농작 속에 숨는다. 가짜 서방이 여인과 다투는 척하면서 자기가 사 준 옷이나마 받겠다고 농작을 지고 관아에 가 목사의 판결을 요청한다. 농작을 열어 보라 명하여 받거벗은 감사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설화이다.

또한 『한국가요의 연구』에서 ‘배비장사 재사가만록’이라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태평한화골계전>의 <발치설화>와 <동야휘담>의 <미케설화>²⁵⁾를 들 수 있는데, 내용면에서 <배비장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태평한화골계전>의 <발치설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경주촌에 한 기녀가 있어 아름답고 아릿다웠다. 장안에서 온 한 소년이 그를 몹시 사랑하였다. 그 관창은 소년에게 ‘집도 본래 문관이 있는 집안의 딸이었으나 몰라깁여 기생이 되었다가 비로소 남자를 만났다’고 하며 애교를 부리는 바람에 그 소년은 더욱 미혹되었다. 그러다가 소년이 장안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 기녀가 작품에 임하여 슬피 우는 바람에 소년은 곧 떠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

관창은 공실한 물건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소년은 수영을 끊어서 주었다. 관창은 모발도 좋거니와 더 추관한 것을 원한다고 하였다. 소년은 이를 빼서 주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괴롭게 지내는데 조림에서 상경한 사람이 있어 관창의 소식을 물어 보았더니 작별한 후 다른 남자와 지낸다는 것이다. 대혹한 소년은 창두를 시켜 이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에 그 관창은 박장대소하여 ‘우아가 아니면 내가 속하였거니와 어리석은 아이인지라 나에게 이를 빼주고 갔다’하고 한 포대를 던지며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남자들의 이를 빼앗은 것이다.”²⁶⁾

<태평한화골계전>에 수록된 <발치설화>는 장안의 한 소년이 계림의 아름다운 기생에게 혹하여 이빨을 빼어주고 헤어진 뒤, 그 아름다운 기생이 다른 남자와 좋아 지낸다는 말을 듣고 하인을 보내어 이빨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남자의 이가 든 포대를 하나 던져주었다. 어리석은

25)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384쪽.

26)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876쪽.

아이가 도살장에 가서 살계를 말하는 식이라며 창가에서 비례를 꾸짖더니 하며 비웃었다는 설화이다. 이 <밭치설화>는 지나친 색을 탐하고 창가에서 예를 언급할 정도로 어리석음이라는 요소가 공존한다.

다음은 <동야취담>에 수록된 <미궤설화>의 내용이다.

노모가 경차관이 되어 경주에 도착하였다. 그는 기생들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이에 중기들이 조심하고 부윤도 미워하였다. 부윤의 중기들을 보고 차관을 능히 속이면 중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한 동기가 자원하였다. 동기는 차관이 묵고 있는 객사의 소동과 짜고 날마다 저녁이면 객사로 소동을 불러내어 이야기하곤 돌아갔다. 차관은 소동이 없는 사이에 찾아온 동기를 불러들여 자기의 심정을 호소하며 같이 자자고 하였다. 동기는 그 차관을 꺾어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옷을 벗고 같이 자려 하였다. 홀연 남자의 소리가 문밖에서 나므로 차관은 누구냐고 물었다. 전남편이라 하면서 성격이 사나우니 빨리 피신하라고 한다. 차관은 숨을 데가 없으므로 동기가 시키는 대로 벌거벗은 채 궤 속에 들어가 숨는다. 그 남자가 들어와서는 나의 의복과 재물을 가지러 왔으니 궤를 내놓으라 한다. 동기는 궤는 내 것이라고 시비하다가 관가에 송사하기로 하고, 그 궤를 지고 관가로 가니 날이 새었다. 재판에서 판관은 궤를 톱으로 썰어서 나누어 가지라 하고 하사를 시켜 궤를 썰게 하였다. 차관이 궤 속에서 톱 소리를 듣고 ‘사람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궤를 열어보니 차관이었다.²⁷⁾

위의 두 문헌설화 <밭치설화>와 <미궤설화>는 <배비장전>의 대표적인 근원설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특히 <밭치설화>는 <배비장전>의 초반에 나오는 정비장과 기생 애랑의 이별장면에서 이를 빼주는 구조가 같고, <미궤설화>의 경우는 차관이 망신당하고 배비장이 망신당하는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작품의 흐름을 보았을 때,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배경과 등장인물이 다른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헌인 <용천담적기>에 수록된 설화의 내용은 한 재상이 남도에 안찰사로 갔는데, 성격이 몹시 엄격하여 사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화산에 예쁜 계집이 재상과 정을 통하였으나, 겉으로는 담담하게 보였다. 재상은 기생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를 하지 않아 고을 기생들이 모두

27)김기동, 앞의 책, 876~877쪽.

걱정하였다. 그러나 한 기생만 오히려 재상을 골탕을 먹이려고 결심을 한다. 그래서 기생이 숨어보는 가운데 재상이 늦대야에 술을 먹게 하였다는 이야기와 그 고을 원님이 어떤 일로 책망당할 일이 있어 낮은 등급을 받게 되자 원이 계집을 불러 자신의 등급을 해결해주면 살림을 넉넉히 보답하겠다는 조건을 내건다. 그러자 계집이 재상을 혹하게 하여 그 고을의 등급을 중간 등급으로 올려놓게 된다.

이 설화는 기생의 입장에서 양반 관료들이 내세우는 사고방식의 가식성을 폭로하며 나아가 중세적 모순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어 시대적 변천과 객관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사대부들의 훼손 모티프의 시각적 변모를 나타내고 있다.

남성훼손소설의 경우는 남성훼손설화의 구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배비장전>의 내용만 보더라도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은 자신을 정남, 도덕군자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주연 자리에서 거부하고 이탈한다. 훼손음모자에 의해 훼손이 이루어지고 결국 기생의 유혹에 빠져 훼손을 당한다. 마침내 훼손음모가 밝혀지고, 인격을 무시당하여 망신을 당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설화의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비장전> 이외에도 훼손을 다룬 소설로는 <정향전>, <종옥전>, <오유란전>, <삼선기>, <지봉전> 등이 있다.

훼손을 다룬 소설을 잠깐 언급해보면 남성훼손설화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향전>의 경우, 작자와 제작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고소설로서 조선 후기에 남성의 훼손을 담은 소설의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다.

관서지방을 여행하고자 하는 양녕대군이 세종과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난 뒤 세종이 밀명을 내려 기녀로 하여금 객희를 풀어 드리라 하여 감사와 서운이 정향과 함께 모함하여 양녕대군을 훼손시키는 구조이다. 결국 훼손되는 주인공은 양녕대군이고, 훼손을 유도하는 사람이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세종인 것이다. <정향전>이 훼손이라는 큰 틀에서 독특한 작품성을 띠는 것은 여색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엄명과 기녀에게 수청들게 말라는 밀지의 모순성을 정향의 교묘한 꾀를 극복하는 구성, 우애와 형제간의 정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배비장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옥전>에서는 숙부의 음모에 의해 종옥의 사고방식이 변화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양반 전형적인 남성의 시각이 주도적으로 드러나는 남성 궤절형 이야기이다. <종옥전>에서 등장하는 기녀 향란은 자신이 기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어진 운명이며 양반인 성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극히 기존 질서에 따르며 순응하는 인물로 궤절을 수행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주인공 종옥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여색향락을 거부하며 유교적 도덕만을 고집하는 주인공의 태도는 현실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성의 결핍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현실적인 균형 감각을 상실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오유란전>은 궤절을 시키려는 인물이 평생의 우정을 약속한 평양감사 김생이다. 김생은 이생과 함께 금석같은 굳은 애정을 맺고 평생의 고락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이지만, 여색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학문을 하는 자라면 향락적인 여색을 아예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학문과 여색 향락은 무관한 것이고 정도에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 김생의 생각이다.

결국 <오유란전>은 주인공이 오유란에게 속아서 귀신으로 변신한 오유란과 동참하고,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생 자신도 죽어 귀신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 빠지게 함으로써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색에 참혹되어 호색적인 이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궤절소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삼선기>는 남성궤절소설의 서사 구조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춘풍이 여색을 멀리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궤절대상자인 이춘풍이 현실 세계를 뒤로 하고 도학자로서의 삶만 사는 인물이다. 그러나 두 기생이 이춘풍의 제자로 들어가서 궤절당하게 되어 궤절음모가 밝혀지며 이춘풍은 기생 모가비로 두 기생과 함께 교방을 운영하고 이춘풍과 두 기생은 신선처럼 여생을 보낸다.

<삼선기>의 경우, 이춘풍의 허위의식을 폭로하거나 이춘풍이 망신을 당하나 이춘풍의 패배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춘풍의 궤절 후 이춘풍의 삶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칭송받게 되고 신선처럼 살다가 삶을 마감함으로써 다른 남성궤절소설과는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봉전>을 들 수 있다. <지봉전>은 애정담과 궤절담으로

이야기의 구조가 나뉘어지나 훼손담 쪽의 내용을 살펴본다. 훼손담 쪽의 지봉은 당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투철한 애정관을 가진 인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효종과 백옥의 의도된 애정으로 인하여 그의 애정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훼손 당하고 만다. 이에 반하여 기녀 백옥은 기녀라는 특수한 신분과 직업인으로서의 대변자로 자처하여 좀 더 개방적이고 정반대의 애정관을 가진 지봉을 훼손시킴으로서 훼손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으로 구비·문헌 설화 및 남성훼손형 소설을 살펴보았다. 남성훼손설화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떤 남자가 금욕적 절조를 내세우며 여색을 멀리한다. 그 남자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는 다른 남자가 훼손을 모의한다. 그 훼손을 하는 과정에서 기녀가 등장한다. 기녀는 금욕적 절개를 내세우는 남자를 훼손시키는 책임을 맡고 계획적인 유혹을 하게 된다. 정남이라고 자처하는 남자는 기녀와 은밀히 정을 나눔으로써 금욕적 절개가 훼손당한다. 결국 훼손을 모의한 남자와 기녀에 의해 절개를 내세운 남자의 훼손 사실이 폭로되는 구조²⁸⁾를 띠고 있다. 이러한 남성훼손설화와 <배비장전>을 비교했을 때, 구조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배 비장은 자신이 구대정남이라고 생각하며 여색을 멀리한다. 그러나 제주 목사가 벌인 주연 잔치에서도 배 비장은 참석하지 않고, 이탈하고 만다. 결국 제주 목사는 기생 애랑과 훼손을 모의한다. 애랑은 배 비장을 훼손시키도록 유혹을 하고 방자는 배 비장이 애랑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끈다. 배 비장은 기생 애랑과 동침을 하고, 절개를 훼손하게 된다. 마침내 방자와 기생 애랑에 의해 배비장의 훼손음모가 폭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남성훼손설화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룡장백>과 <발치설화>, <미귀설화>는 문헌 설화상 최초로 훼손이라는 대담한 소재로 전해졌으며, <배비장전>이 주인공과 배경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성훼손소설로 분류되고 있는 <정향전>, <중옥전>, <오유란전>, <삼선기>, <지봉전>의 소설들도 이러한 영향으로 훼손사건을 접하는 주인공인 사대부, 양반층과 기녀를 포함하여 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훼손이라는 구도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이원수, 「남성훼손설화의 실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21, 국어교육학회, 1989, 72쪽.

Ⅲ. <배비장전>에 나타난 인물 궤절 양상

<배비장전>은 여색에서 초연해지고자 하는 양반이 기생에 의해 궤절되는 서사적 구조를 띠고 있다. 주인공의 궤절을 꾸미는 음모자로 양반 관리층인 제주 목사와 제주 목사의 궤절음모를 행동에 옮기는 기녀 애랑, 배 비장을 궤절하게 유도하는 방자, 정남이라고 자처하지만 결국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서 궤절을 당하는 주인공인 배 비장으로 주요 인물이 구성되어 있다.

<배비장전>에서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과 해석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배비장전>는 궤절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대립 구조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궤절’이라는 사건을 사이에 두고 각각의 인물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인물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궤절이란, 절개나 절조를 깨뜨린다²⁹⁾는 의미이다. 신체에 대한 훼손감, 성적인 주체성에 대한 훼손감을 동반한다. 남성궤절형 소설인 <배비장전>, <오유란전>, <삼선기> 등이 궤절이라는 제재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소설들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주변 인물들에 의해 자의든 타의든 남성의 성적이나 신체의 주체성이 훼손된다. 또한 주인공을 공모함으로써 풍자와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배비장전>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부에 등장하는 인물인 애랑과 배 비장을 궤절사건에 휘말리게 하는 인물인 방자는 작품 전체에서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제주 목사는 배 비장과 같은 집단 체제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비장을 감싸주기보다는 오히려 공모에 관여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리고 애랑과 정비장의 애정 관계를 보고 한심스러워했던 광경을 배 비장과 정비장은 함께 관료집단의 전형성을 띠고 있는 인물로 비추어지고 있다. 결국 이들은 조선 후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들인 것이다. 즉 ‘애랑, 방자 - 배비장 - 제주 목사 관여’의 공식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식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인물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애랑은 천하일색의 기생으로 작품 초반에 정비장과

29)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3, 어문각, 1992, 4783쪽.

의 이별을 하고 계획적으로 배 비장을 직접 훼손시키는 인물로 후반부에 등장하는 방자와 함께 훼손 사건과 주요 연결 고리를 맺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정비장을 언급할 수 있다. 정비장의 모습은 배 비장과 가장 비슷한 유형의 인물로 나온다. 정비장은 작품의 초반에 애랑과 정을 나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생 애랑에 의해 빼앗기는 한심하고 당시 부패한 하급 관리의 모습을 띠고 있다.

<배비장전>의 주인공인 배 비장은 위선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자신은 다른 비장들과 다름을 주장한다. 배 비장은 제주 목사가 베푼 주연 자리에서 기생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도 제주 목사가 자리를 떠나자 방자에게 부탁하여 기생인 애랑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인물이다. 결국 방자와 애랑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

방자는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만 인식해왔다. 그러나 <배비장전>에 등장하는 방자라는 인물은 배 비장을 훼손시키는데 큰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 방자는 배 비장과의 내기를 통해 주체적으로 훼손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도록 한다. 즉, 배 비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결국 방자는 배 비장을 훼손시킴으로써 민중들의 비웃음을 사고 양반 집단을 무너뜨리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기득권층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입장에 서서 관료집단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방자라는 인물은 단순히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훼손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비장전>에서의 방자는 처음부터 애랑과 함께 배비장과 대립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작품 전반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안내자, 보조자의 역할을 넘어서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작품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배 비장에 이어서 제주 목사가 등장한다. 배 비장과 정비장으로 묶여질 수 있는 집단인 것처럼 보이나 제주 목사는 다른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주 목사는 작품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양반 계층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제주 목사는 전형적인 기득권층이다. 배 비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관료집단에서 일탈하려고 하자 결국 제주 목사는 배 비장을 배제시키려고 한다. 기존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제주 목사가 체제에서 일탈하는 배 비장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하여 배 비장을 웃음거리고 내몰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방자와는

다른 측면으로 훼손사건에 접근하지만 방법의 차이일 뿐 배 비장이 훼손하는데 기여하는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배비장전>에서는 작품의 주된 흐름이 훼손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정남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한 남자가 결국 여색에 미혹이 되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애랑, 방자, 배 비장, 정비장, 제주 목사가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도 등장하고 있다.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대부인, 배 비장의 아내, 사공, 하인, 여러 비장들, 공방 고자, 각 방 방임과 비장 동임들이다. 대부인은 제주로 떠나려는 배 비장을 만류하는 인물이고, 배 비장의 아내는 남편이 주색에 잠겨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인물로 나온다. 사공은 제주 목사의 분부를 듣고 실행에 옮기는 그 당시 하층민에게 상위계층이 명령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비장이 발치하도록 도와주는 공방 고자, 제주 목사가 만든 주연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하는 비장들, 배 비장이 동현 마당에서 망신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는 비장 동임들이나 못 사람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배비장전>은 구성단계를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누어서 작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입부에는 제주 목사와 배 비장과 애랑이 소개된다.

이조 초에 김경이 제주 목사가 되면서 배비장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된다. 배 비장은 친구사또의 교체에 의해 구간사또인 정비장이 제주 기녀인 애랑과의 이별을 하게 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 광경은 애랑이 정비장에게 교태를 부리며 온갖 아양으로 다가간다. 애랑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정비장의 속옷을 벗기고, 비장의 상징인 보검을 빼앗는다. 심지어 상투를 자르게 하며 앞니까지 뽑게 한다. 결국 정비장의 재물과 관복까지 빼앗는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배비장은 정비장을 비웃으며 방자와 내기를 하게 된다. 즉 기녀 애랑과의 호색에 초연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훼손이 시작되는 셈이다.

제주 목사 김경이 배비장을 훼손시킬 기녀를 구하자, 애랑이 스스로 유혹하겠다고 한다. 한라산 놀이를 가서 배 비장의 눈에 기생 애랑의 목욕하는 모습에 반하여 애랑의 집으로 찾아간다. 배 비장은 애랑을 잇을 수가 없어 방자를 시켜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전달하라고 명하고, 결국 방자는 글을 애랑에게 전달한다.

애랑에게 흑한 배 비장은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병거지를 쓰고 담구멍으로 기어 애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한다. 애랑은 배 비장을 유혹하고 자신과 함께 침소에 들게 한다. 배 비장은 자신을 ‘구대정남’ 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버리게 됨으로써 배 비장은 훼손된다. 그러자 방자가 애랑의 남편임을 가장하여 배 비장을 조롱한다. 결국 배 비장은 몸을 피하려고 자루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피나무 껍속에 들어가 숨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동헌 마당에서 나체로 된 배 비장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배 비장이 절개를 잃게 됨으로 인해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양반층이 기생이라는 기물에 빠져서 망신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조롱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말부분에 다소 이본에 따른 차이를 보이나, 신구서림본의 내용이 추가되면 배 비장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내용이 된다. 서울로 올라오려는 배 비장을 애랑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보내다가 목사의 선처로 정의 현감의 편지를 통해 애랑을 첩으로 삼고 이조참판이 되어 행복한 작품의 결말이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배비장전>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훼손 사건을 인물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인물 양상을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속내 감추기와 위선 들춰내기 양상이다. 즉, 배비장과 애랑, 방자와의 대립양상이다. 개인적 차원의 인물의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속하는 인물들의 대립 양상은 자신을 감추는 배 비장과 배 비장을 유혹하는 애랑, 배 비장의 치부를 드러내는 방자와의 관계다. 자신은 정남이라고 생각하여 기생인 애랑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려는 하는 것을 통해 숨기려는 모습과 숨기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 비장의 본성을 자극하여 배 비장을 들춰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둘째, 체제 유지하기와 질서 무너뜨리기이다. 배 비장, 정비장과 제주 목사의 대립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물의 구도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인물 구도다. 하급 관리가 기존의 관료집단의 체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정비장과 배 비장을 상류집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 목사가 속해있는 집단 역시 여색을 밝히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집단에 속해 있는 관료들 역시 초연해지려고 하지만 관행상 자신들이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즉, 집단의 체

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정비장과 배 비장을 제주 목사를 비롯한 집단의 시각에서는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수단으로 비취지는 것이다. 하급 관리인 정비장과 배 비장은 제주 목사 자신들이 닦아 놓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일탈로 생각하여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제주 목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양상을 띠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인물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속내 숨기기와 위선 들춰내기

<배비장전>에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하는 인물은 배 비장 자신이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인물, 밝혀내려는 인물은 애랑과 방자이다. 방자의 경우는 애랑과 방자의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다. 애랑은 배 비장에게 접근하는 것이 여색을 자극하여 남성의 본능을 자극하려는 것이 기녀 애랑의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두 인물의 공통점은 배 비장이 숨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 베일을 벗겨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배 비장의 속내 숨기기와 애랑이 배 비장의 위선을 들춰내기이다. 애랑은 기녀의 신분으로 양반에게 접근해서 풍류의 수단이었다면 <배비장전>에 나오는 기녀의 애랑은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기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녀 애랑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반을 웃음거리고 만들고,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다.

먼저 배 비장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장면이 제주 목사인 사또가 벌인 주연에서 배 비장의 태도는 어울릴 것 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은 그 자리를 사양하고 있다.

사또, 각 방 비장과 의논하고 날이 밝아 올 무렵에 명을 내려 한라산 꽃놀이 간다. 사또 행장 차린 우의 불작시면, 용머리 새긴 주홍빛 가마에 호피 돋움 끼쳐 타고, 전월 부월 삼영 집사는 순시기와 영기 벌여 꽃고 좌우로 휘화한다. 녹의 홍상 미녀들은 백수 한삼 높이 들어 풍악 중에 노닐며,
 “지야 자자”

하는 소리, 많은 나무와 온갖 꽃이 어우러진 숲에 육각성을 섞어 띄워 산과 물에 울려 퍼져 잣았는데, 때는 새가 우는 봄이라.

...중략...

잔잔한 푸른 시냇물에 불어오는 따듯한 봄바람 좋으니, 얼크러지고 뒤틀어진 가지마다 잎잎이 뒤적이어 우쭐 활활 굽니는 것은 긴 개울과 푸른 숲에 가지 드리운 버들이요, 복숭아 꽃 황하 흩어져 격으로 굽이굽이 휘휘 돌쳐 ‘우루렁, 출렁, 풍풍’ 뒤질러 ‘좌르를, 켈켈’ 흐르는 것은 장천 폭포 아홉 굽이를 도는 개울이라. 청산 녹수 돌아드니 높고 높은 봉래산이 여기로다.

사또, 소나무 아래에 가마 놓고 경계를 살펴보니, 제주 사방은 푸른 물결과 긴 하늘이 한 가지 색깔로 들렀는데, 쌍쌍히 흰 갈매기를 홀리 뜨고, 점점이 어선은 너른 강에 돛을 달고 골골이 드나든다. 맑은 바람을 쏘이면서 적벽강에 뱃놀이하던 소식이 이 곳을 보았다면 적벽강에 어이 놀며, 등왕각에서 노래와 춤을 즐기던 왕발이 보았다면 ‘낙하여고목제비’를 여기 와서 읊으리라. 산경수경 제주 춘경 무한 풍경이 좋을씨고. 사또와 모든 비장이 명기·색기에게 술을 부어 감홍로·계당주 취케먹고 춘흥에 겨워 노는 적에, 배 비장은 가장 청고한 척하고 소나무 정자 바위 위에 외면하여 홀로 앉아 남노는 것 비양하고, (160-162쪽)

배 비장은 제주 목사가 벌이고 있는 잔치를 동조하지 않고 먼 산을 보거나, 심지어 글을 지어 읊기까지 한다. ‘가장 청고한 척하고 소나무 정자 바위 위에 외면하여 홀로 앉아 남노는 것 비양하고’에서 알 수 있다. 관료의 유희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배 비장은 동일 집단 내에서 거슬리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곧 자신은 숨기고 사또가 벌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배앓이를 통해 참석을 저지하고 애랑에게 접근하는데 결국 자신의 절개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사또, 가마 타고 환관하려 하고 선배를 재촉한다. 여러 비장과 기생·하인들도 일제히 돌아갈 제, 배 비장은 뒤쳐질 마음 두고 피병으로 배앓이 한다. 여러 비장 동임들이 눈치채고 하는 말이.

“벌써 혹하였구나.”

수군대면서 걸인사로 위로한다.

“예방께서는 급관란인가 싶으니 침이나 한 대 맞으시오.”

“아니오, 침 맞을 병이 아니오. 진정하면 낫겠소.”

여러 비장들이 웃음을 참고 방자를 불러 이른 말이,
 “너의 나리 병환이 본병환이라 하시니 진정하고 잘 모시고 오너라.”
 껏속말로 이르고, 또 배 비장더러 하는 말이,
 “이대로 사또께 잘 여쭙는 것이니 마음 놓고 진정하여 오시오.”
 “동관께서 이처럼 염려하시니 감사하거니와, 사또께서 미안치 아니 하도록 잘 여쭙어 주시기를 바라오. 애고 배야.” …중략…
 사또 모시고 관아로 돌아올제, 배 비장은 그 여인 보려는 급한 마음에 배얹으며 방자를 부른다.
 “방자야, 애고 배야.”
 “예에.”
 “이애야, 나는 여기를 오니 취안이 몽롱하여 지척을 못 보겠다. 애고 배야.”
 “소인도 나리께서 애쓰시는 것을 뵈오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사또 가시는 데 자세히 보아라.”
 “산 중턱에 내려가고 계시오.”
 “애고 배야, 또 보아라.”
 “삼 모퉁이 지나셨소.”
 “나무에 가리어 보이지 않소.”
 “산을 돌로 길을 돌아 임이 보이지 않음이라. 내 배 그만 아프다.
 (167-172쪽)

배 비장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배얹이라고 속이고, 기생을 보기만 하여도 배가 더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다. 아울러 배 비장은 기생 애랑을 보기 위해 사또에게 얼른 자리를 떠날 것을 요구하고 사또가 사라지기를 방자를 시켜 망을 보게 하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낸다. 동시에 부패된 관리로 대표되는 배 비장의 향락을 즐기고 싶어하는 모습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에 놀고 산에 놀고 온갖 교태를 다 부리어 노는 애랑의 모습을 보고 배 비장은 자신이 감추고 있던 욕정을 여실없이 그대로 드러낸다.

한편, 배 비장은 절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은 구대정남이라면서 다른 비장들과는 다름을 주장하고, 여색에 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다짐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남 노는 것 비양하고 앉았을 제, 여러 비장 동임들이 배 비장을 권하여 전갈하되,

“방자야, 네 예방 나리께 가서, ‘아까새 문안 아옵고자 하옵니다.’ 하고 ‘물색 좋은 이 곳에 와서 수심하시니 웬일이오니까.’ 하고 ‘고향 생각 너무 마옵시고, 이 아름다운 여자 가운데 골라 수청하옵고 사랑 동포 정답하는 것이 장부 소일이니, 이제 돌아오시면 같이 놀겠삽나이다’ 하고 여쭙어라.”

방자 놈이 분부 받자와 예방 나리께 전갈 드린다. 배 비장이 전갈 듣고 회답하되,

“ ‘먼저 물어 계시니 기뻐거워하옵니다.’ 하고 ‘나리께서는 나와 다 같이 서울에서 자라난 친구로서 나의 본성을 모르시니 애달소이다.’ 하고, ‘우리는 본시 구대를 이어오며 절개를 지킨 남자라 절대로 잡마음은 없사오니, 내 말씀은 마시옵고 그 쪽에서나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을 모두 다 하옵소서.’ 하고 여쭙어라.” (155-156쪽)

배 비장은 비장들과 다름을 스스로를 언급하면서 비장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 못한 채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급하게 방자를 부른다.

무슨 급한 일이나 있는 듯이 방자를 필쩍 부른다.

“이애, 방자야, 방자야.”

“예예.”

“지금 기생 차지가 누구냐?”

“행수에 차질예로소이다.”

배 비장이 차질예 불러 분부하되,

네 만일 지금 이 시각 이후로 기생년들을 내 눈앞에 비추었다가는 엄한 매로 다스리리라.” 하고 분부한다. (156-157쪽)

배 비장의 이 같은 발언에서 자기는 여색에 초연해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또는 결국 일등 명기들을 부르고, 더 나아가서는 배 비장을 기쁘게 하여 웃게 하는 자는 상을 내리겠다는 음모를 배 비장은 알지 못한다. 결국 배 비장은 자신에게 초래될 일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산산히 무너지고 마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배 비장이 자신은 여색에 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의지를 꺾겠다고 나선 인물이 바로 기녀 애랑인 것이다. 애랑은 주로 배 비장을 직접적으로 유혹하여 훼손시킴으로써 배 비장이 처한 상황을 통쾌해 하고 있는 것이다.

기녀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전형적인 양반들의 풍류문화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배비장전>에서는 기녀가 양반계층에 대한 노리개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즉 특수집단인 기녀에게도 사회적 입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기녀뿐만이 아닌 신분상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녀인 애랑과 방자로 대표되는 두 인물은 하층민이 상류층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과 조롱도 함께 섞여 있음을 결국 두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기생인 애랑은 배 비장을 유혹하기 시작한다. 월등한 미모로 지배층을 농락하고 희롱하는 당대 전형적인 기생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호남 좌도 제주군 한라산은 옛적 탐라국 주산이요, 남쪽의 섬 가운데 제일명산이라. 험준하고 수려한 정기가 어리어서 기생 애랑이가 생겨났나 보더라.

애랑이가 비록 천기로 났을망정 미모는 월 서시와 양태진을 압도하고, 지혜는 남자로 말하면 진유자에 뒤지지 않고, 간교는 구미호가 환생하였던 지, 호색 남자가 얽혀들면 상투 끝까지 빠져 허덕허덕하는 터일러라.
(108-109쪽)

또한 애랑은 작품의 초반에 정비장과 작별하는 과정에서 정비장의 속옷을 벗기고, 비장의 상징인 보검을 빼앗는다. 애랑은 또한 배 비장의 상투를 자르고, 앞니까지 뽑게 한다.

“손으로 걸 만지며 입으로 털을 붙여 쓸 것 같으면, 엄동 설한 추위라도 네 귀 아니 시리리라. 이 휘양 쓸 때마다 부디 나를 잊지 마라.”

애랑이 또 앓아 여쭙오되,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소녀 비록 여자오나 옛 글을 들었으니, ‘우인이 오를거하니 보검이 치천금이라.’ 그 칼이 갑이 많사오나 ‘이별할 때 칼을 뽑아 서로 주고 받는다’ 하니, 평생 한 마음 그 아니 중하온가? 나으리가 차

신 철병도를 끌러 주고 가요.”…중략…

애랑이 철병도 받아 놓고 또 앉아 우는 말이,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나으리 입으신 숙주 창의 · 분주 바지 상하 의복 소녀를 벗어주고 가요.” …중략…

“나으리 들어 보시오. 옷은 그만 벗어 주고 나으리 상투를 좀 빼어주시면, 소녀의 머리와 한테 닿아 드리웠으면 일신 운발 되겠으니, 그것인들 아니 다정하오.”

정비장이 이른 말이

“네 아무리 정리는 그러하나, 나는 바로 경칩절 몽구리 아들이 되라느냐?”

애랑이 통곡하며,

“나으리 여보 내 말씀 듣소, 나으리가 아무리 다정타 하여도 소녀뜻만 못 하오니, 애닭고 그 아니 원통한가. 그는 그러하거니와 하얗게 꾸민 벽과 비단으로 바른 창에 마주앉아 서로 보고 당짓당짓 웃으시던 앞니 하나 빼 어주오.” (133-144쪽)

더구나 <배비장전>에 등장하는 기생인 애랑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사사로이 배 비장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다. 사또의 분부에 따라 당시 사회를 반영하듯 배 비장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애랑을 통해 당시 봉건사회인 지배층에 대한 부패상을 폭로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것이다.

양쪽 기슭에 도화 어린 곳에 옥같이 아름다운 한 미인이 어릴락 비칠락 온갖 교태를 다 부리며 봄빛을 희롱한다. 흰 포장을 두른 푸른 숲 사이로 혹은 나며 혹은 들며 혹은 앉고 혹은 서며, 연기가 찬물 위에 어리고 달빛이 모래 위에 어리는 것같이 이리저리 노는 거동, 월계꽃이 핀 명월궁월아 선녀가 거니는 듯, 구름끼고 비 내리는 양대 깊은 곳에 무산 선녀가 노니는 듯, 상하 의복 활활 벗어 반석 위에 올려 놓고, 기러기가 물 없는 강에 내려서 서로 바라보는 것 같이 물에 풍덩 뛰어들어 노는 거동, 아미산에 걸린 가을 반달이 평강 물에 잠겼는 듯, …중략… 맑은 물 한 줍 옥수로 담썩 쥐어 분길같은 두 손목을 칠팔월 가지 씻듯 보도록 씻어 보고, 맑은 시내에 핀 연꽃 만발한데 푸른 연잎 뚝 떼어서 맑은 물 담썩 떠서 호지 단순 물어다가 양치질도 살살 하며 왁 토하여 뺨어도 보고, 물 한줌을 덤뻍 쥐어 연적 같은 젓통이도 씻어보고, …중략… 맑고 맑은 푸른 물결따라 굽이굽이 노니는 듯, 봄 경치를 즐기며 우루렁 출렁 목욕하는 저 거동,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등·배·가슴·젖도 씻고 , 예도 씻고 살도 씻고 게도 씻는구나.

한창 이리 목욕할 제, 배 비장이 그 거동 보고 어깨가 실룩 정신을 잃어 구대를 지켜온 남자의 정조 간테 없고, 도리어 음낭이가 되었구나.

(163-167쪽)

옥같이 아름다운 미인이 온갖 교태를 부리며 봄빛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배비장이 소나무 정자 바위 위에 혼자 있다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다. 그리하여 목욕하는 모습에 흠뻑 취해 방자에게 서신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한다. 애랑은 배비장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게 되고 마침내 애랑의 집에 함께 있게 된다. 이때, 방자가 남편으로 가장하여 들어오자 배 비장은 놀라 애랑이 시키는 대로 숨는다.

자루에 들어가 상투를 감아 매어 방구석에 서 있게 되기도 하고, 피나무 껍속에 숨게 하는 등 배 비장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애랑이 배 비장을 유혹함으로써 배 비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과정은 <배비장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획절사건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유혹을 시도하여 양반을 혼란스럽게 한 다음 숨기고 있는 것을 들춰내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만이 유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하나 작품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여성만이 유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방자는 애랑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 비장을 유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애랑 역시 방자와 마찬가지로 배 비장을 풍자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방자가 연출가라면 애랑은 주연인 셈이다. 그리하여 ‘구대정남’이라고 배 비장을 배결덕쇠로 전락시키고 거문고로 만들어 조롱하고 드디어는 업케신으로 만들어 별거벗고 동헌 마당을 텅굴게 하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진상을 관아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다는 점이다.³⁰⁾

기녀 애랑의 입장에서 들춰내기의 대상은 정비장과 배 비장이다. 그리고 애랑은 한 인물씩 다가간다. 먼저 배 비장을 유혹하기 전에 정비장과

30) 권순금,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14, 반교어문학회, 2002, 54쪽.

의 이별을 맞는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애랑은 상당한 재물을 요구하고, 배비장은 낱낱이 내어주게 된다. 또한 애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본격적인 작업의 대상인 배 비장에게 몰입한다. 즉, 배비장을 유혹하기 위해 기생인 애랑의 행동이다.

사또께서 분부하시되.

“너희 중에 배 비장을 기쁘게 하여 웃게 하는 자 있으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니, 그리할 기생이 있느냐?”

그 가운데 애랑이 여쭙오되,

“소녀가 불민하오나 사또 분부대로 거행할까 하나이다.”

사또가 하는 말이

“네 능히 배 비장을 훼손시킬 재주가 있으면 제주 기생 중에 인재가 있다 하리라.”

애랑이 여쭙오되,

“이제 한창 봄이 무르익는 좋은 때이오니, 사또께서 내일 한라산 꽃 놀이를 하옵시면 배 비장을 안차 흥계 하오리다.” (159쪽)

위의 장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스스로 배 비장에게 접근하겠다고 사또에게 여쭙는다. 또한 애랑은 사또에게 한라산 꽃놀이 갈 때, 흥계를 꾸밀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애랑은 정비장을 유혹하고 이별할 때도 정비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필요한 것처럼 관료라면 무엇이든지 해주야 하는 듯이 이별을 통보하고 내어달라고 한다.

배 비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배비장전>의 초반에 나오는 애랑과 정비장의 이별장면보다는 철저한 계획 하에 스스로 자진해서 배 비장에게 접근하고 있다.

기생 애랑은 배 비장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일 것을 알고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철저한 계획하에 애랑이 접근하여 부패 관료인 배 비장을 조롱하고 망신당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다음은 기생 애랑이 목욕하는 모습이다.

양쪽 기슭에 도화 어린 곳에 옥같이 아름다운 한 미인이 어릴락 비칠락 온갖 교태를 다 부리며 봄빛을 희롱한다. 흰 포장을 두른 푸른 숲 사이로 혹은 나며 혹은 들며 혹은 앉고 혹은 서며, 연기가 찬물 위에 어리고 달빛

이 모래 위에 어리는 것같이 이리 저리 노는 거동, 월계꽃이 핀 명월궁에
 월아 선녀가 거니는 듯, 구름끼고 비 내리는 양대 깊은 곳에 무산 선녀가
 노니는 듯, 상하 의복 활활 벗어 반석 위에 올려 놓고, 기러기가 물 없는
 강에 내려서 서로 바라보는 것 같이 물에 풍덩 뛰어들어 노는 거동, 아미
 산에 걸린 가을 반달이 평강 물에 잠겼는 듯, ...중략...

맑은 물 한 줌 옥수로 담숙 쥐어 분길같은 두 손목을 칠팔월 가지 씻듯
 보도록 씻어 보고, 맑은 시내에 핀 연꽃 만발한데 푸른 연잎 뚝 떼어서 맑
 은 물 담숙 떠서 호지 단순 물어다가 양치질도 살살 하며 왁 토하여 뿔어
 도 보고, 물 한 줌을 덩벽 쥐어 연적 같은 젓통이도 씻어보고, ...중략...
 맑고 맑은 푸른 물결따라 굽이굽이 노니는 듯, 봄 경치를 즐기며 우루렁
 출렁 목욕하는 저 거동,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등·배·가슴·젖도 씻고 예도
 씻고 살도 씻고 계도 씻는구나.

한창 이리 목욕할 제, 배 비장이 그 거동 보고 어깨가 실룩 정신을 잃어
 구대를 지켜 온 남자의 정조 간테 없고, 도리어 음낭이가 되었구나.

(163-167쪽)

이 광경을 보고 배 비장은 정신이 혼미해서 바로 방자를 불러들이며,
 배 비장은 방자에게 전갈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특히 <배비장전>에서 등장하는 기녀인 애랑의 모습은 비록 정비장과
 배 비장이 두 남성이 기생에 의해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의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 즉 애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정
 비장이나 배 비장이 사회적인 위치가 하급관리이기는 하나 자신들과는 거
 리가 있는 상류층에 속하는 계급층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녀 애랑은 처음
 에는 먹고 살기 위해 재물에 욕심을 탐내다 점차 양반인 남성을 끌려주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이 작품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정비장이 애랑
 에게 뺏기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두루마기 돈피휘양, 금경도, 숙쥬
 창외 분주바지, 고의 적삼등 양반 남성을 상징하는 사물들을 빼앗는다. 뿐
 만 아니라 유교 사회의 양반 남성에게 상투나 이빨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앗아가는 것 또한 기존의 질서에 대한 대항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배 비장은 정비장이 자신의 체면을 잊은 채 천한 기생에게 혹하여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그를 보며 배 비장은 한심하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서울과
 시골을 돌아다니며 미인을 보았지만 한 눈 한 번 관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정남임을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그러나 곧 배 비장은 여

성에게 눈을 돌리게 되고 제주 목사와 애랑, 방자에 의해 음모에 휘말리게 되어 결국 훼손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훼손을 주도하는 인물은 기녀 애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남이라고 자처했던 배 비장이지만,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표리부동한 모습을 애랑은 폭로하고 싶었던 것이다.

기녀 애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신으로 인해 배 비장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풍류의식을 즐기면서도 유교적인 고상함을 강조하려는 기존의 관리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양반 남성의 일시적인 성적 도구로서 기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자, 천민으로 취급 받은 자신들이 대표로 하여 민중들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양반들의 허위의식이나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게 하는데 중요한 위치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상을 보여준다.

다음은 배 비장의 속내 숨기기는 것을 방자가 배 비장의 위선을 들춰내는 관계이다. 애랑이 위선을 들춰내는 과정에서 여색을 이용했다면, 방자는 배 비장이 직접 훼손을 하도록 유도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폭로된다. 방자는 배 비장의 속내를 하나씩 보여줌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방자는 애랑처럼 배 비장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개인적 감정을 유도하여 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 비장의 위치에서 애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애랑과는 다르게 방자는 배 비장에게 애랑과 접촉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방자는 배 비장과의 내기를 통해서 배 비장을 훼손시키는데 배 비장과 애랑의 편지를 전달하고, 배 비장에게 개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한다.

애랑은 주로 정남이라고 자처하는 배 비장을 유혹하여 훼손 수단으로 쓰인다. 비록 배 비장에게 접근할 때는 사또의 분부에 애랑이 자발적으로 배 비장에게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배비장과 내기를 하여 기생 애랑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면 자신에게 가족들이 드난삼을 먹고, 기생 애랑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타신 말을 자신에게 달라는 하는 내기를 하는 것으로 방자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배 비장 자신은 기생에게 관심이 없다는 결심을 방자는 듣고 의식하여 챙겨주는 척하지만, 정작 방자는 배 비장을 상류층으로서 위신을 세우며, 자신이 원하는 대가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또한 배비장의 여색을 탐하는 것을 좋아하며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배 비장을 챙겨주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배 비장이 방자에 의해 조롱당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중략… 한참 이리할 제, 방자가 뜻밖에 기침 한 번 각 하니, 저 여인이 놀라는 체하고 몸을 움쪽 소스라쳐 물 밖으로 뛰어나와 속곳치마 꿍쳐 안고 흰포장 포른 수풀 사이로 얼른 뛰어드는 양은 보름달 밝은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간 듯. 배비장이 그 곳만 보다가 눈이 킁킁, 어안이 병병, 정신 잃고 앉았다가 하는 말이.

“이놈, 네 기침 한 번 낭패로다.”

이처럼 자탄하다가,

“이애, 방자야.”

” 예에.”

“네 저 흰 포장 밖에 가서 문안 한 번 드리고, 그 여인에게 전갈하되. ‘이 산을 지나가던 손이 꽃놀이로 올랐다가 행역에 노곤하고 기갈이 자심 하니, 혹 음식 있거든 기한을 면하게 구급을 시키압기 천만 바라옵나이다.’ 하고 여쭙어라.” (179-180쪽)

방자는 배 비장의 명령에 당황해한다. 초면에 서신을 전하고 남의 여자에게 음식을 차리라는 명령 때문이다. 처음에는 명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마음을 바꿔서 헛 절 한 번 하고 애랑에게 가서 음식을 차리라고 전한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전갈 못가겠소. 알지도 못하는 초면에 전갈하고 남의 여자에게 음식 달라다가는 난장 박살, 탕국에 어열밥 말아 먹기 쉽겠소.”

배 비장이 무료하여 하는 말이,

“이애 방자야, 만일 맞을 지경이면 매는 내가 맞을 것이니, 너는 들어 내 빼려무나.”

방자 놈이 하는 말이

“나리 정경을 보오니 몽치 바람에 죽는대도 그리할 수밖에 없소.”

하고 설렁설렁 가만가만 건너가서 헛 절 한 번 하고,

“쉬, 애랑아. 배 비장이 벌써 네게 흑하였으니, 무슨 음식 있거든 좀 차려다우.”

애랑이 웃고 음식 차릴 제, 산중 귀물로 정갈하게 차리는구나. (180-181쪽)

방자는 결국 애랑에게 음식을 차릴 것을 권한다. 결국 애랑은 배 비장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이를 본 방자는 애랑을 칭찬한다.

대모 쟁반·금채 화기 벌여 놓고, 빛 좋은 맑은 기름에 쌀가루로 지진 두견화전 한 접시 소담하게 담아 놓고, 붉은 홍시 설탕 뿌려 붉은 산인 듯 흰 산인 듯 벌여 놓고, 동정호 가을 물결같이 맑은 술 자라 병에 가득 넣어 옥수로 내어 주며 이른 말이,

“너의 나리 무례하나 기갈이 자심하다기에 이 음식 보내오니, 그도 먹고 너도 먹고 산에 핀 꽃을 보며 두 사람이 대작하라. 일배 일배 부일배에 두 사람이 포식한 후, ‘군자는 기미를 보면 곧 행한다.’ 하였으니, 그곳에 잠 시도 있지 말고 어서 빨리 가거라. 미구에 큰 탈 날라.”

그 사연을 전하고 음식 올리니, 배비장이 절시구나 학 음식 받아 앞에 놓고 칭찬하여 가로되,

“겉볼안이라 하니 내 이러할 줄은 알았거니와, 저 감에 이빨 자국이 웬 것이냐?”

방자 놈이 여쭙오되.

“그 여인이 감꼭지를 이로 물어 빼웁디다.”

배 비장이 탈기하여 꺾꺾 웃으며,

“이 음식일랑 너 다 먹어라. 나는 감 하나만 먹겠다.” (181-183쪽)

이빨 자국 난 감을 방자는 배 비장에게 먹지 말라고 권하자, 배 비장은 애랑이 깨물었던 감을 먹겠다고 한다. 방자가 배 비장에게 시도하는 행동들을 통해 배 비장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욕망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 비장이 자신이 감추고자 했던 호색을 드러내는 과정에서는 방자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배 비장을 보필하는 역할이 아닌 배 비장의 감추어짐을 들춰내는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훼손사건과 관련해서 배 비장과 애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애, 방자야, 너와 나와 중요지담으로 말하자. 그 여자가 음식 차려 보낸 것을 보니, 쫄녀도 내게 관심이 없지는 않더라. 혹시 일이 안 되어도 말이나 붙여 보자.”

“어따가 말을 붙여 보아요?”

“그 여인에게.”

“어림없소. 그 여인 성정이 악남이요 절개가 굳으니, 그런 생각은 부디 마오.”

배 비장이 방자를 붙잡고,

“되나 안 되나 편지를 써 줄 것이니, 일만 되면 구전 삼백 냥을 상급으로 너를 주마.”

방자 놈이 수전 주마는 말을 듣고, 관청에서 눈칫밥으로 자란 놈이 라, 돈냥으로 얻을 생각으로 지긋이 미대는 수작으로 나온다.

“소인은 그 편지 못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애, 그게 무슨 말이나? 내가 천리 밖에 와서 마음을 털어놓고 지내는 하인이 너 밖에 또 누가 있느냐?” (189-190쪽)

방자는 배 비장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지를 받은 애랑에게 방자는 시간을 늦춰서 배 비장을 초조하게 하라는 당부를 하며 답장을 받아온다.

편지 구절에 ‘물러나라’는 구절에 놀란 배 비장을 보고 방자는 다시 배 비장을 조정한다. 서서히 배 비장은 방자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서서히 방자의 꼬임에 넘어가는 배 비장을 보면서 민중들은 즐거워하고 통쾌감을 맛보게 된다.

방자와 배 비장의 내기는 결국 배 비장 스스로 궤절을 초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저 건너 길 위에서 청춘 남녀가 서로 잡고 못 떠나는 저 거동이 웬일이냐?”

방자가 여쭙오되,

“기생 애랑이와 구관 사또의 정비장과 떠나느라고 작별인 줄 아뢰오.”

배 비장이 그 말 듣고 비양하여 이른 말이.

“허랑함 장부로다. 친척과 부모를 멀리 떠나 천 리 밖에 와서 아녀자에 크게 혹하여 저다지 애걸하니 체면이 틀리었다. 우리야 만고 절색이 아니라 양귀비·서시라도 눈이나 떠 보게 되면 바사기의 아들이로다.”

방자 놨이 코웃음 하며 여쭙오되,

“나오리도 남의 말이라고 수이 마옵소서. 애랑의 은은한 태도와 연연한 얼굴을 보시면, 오목 요(凹) 자에 움막을 짓고 게다가 세간을 하오리다.”

배 비방이 울기를 잔뜩 빼며 방자를 꾸짖는 말이,

“이놈, 양반의 정치를 어찌 알고 경솔히 말을 하느냐?”

“그러하오면, 황송하오나 소인과 내기하옵시다.”

“무슨 내기를 하려느냐?”

“나오리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저 기생에게 눈을 아니 뜨시오면, 소인의 다술 식구가 댁에 가서 드난 밥을 먹삼고, 만일 저 기생에게 반하시오면 타신 말을 소인에게 주기로 하십시다.”

배 비장이 대답하되,

“그는 그리하여라. 말 값이 천금이로되 내기하고 너 속이랴?”

(149-151쪽)

방자는 미색을 대하면 혹할 수 밖에 없는 인간 본성을 말하는데, 배 비장은 ‘양반의 정치’를 들먹거리며 훈계를 하려 한다. 배 비장은 속으로는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도덕적 덕목을 겉으로는 양반의 처지를 내세워 떠받드는 척하는 것이다.³¹⁾

방자와 배 비장이 서로 조건을 걸고 내기를 한다. 기생에게 반하게 되면 방자는 배 비장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생에게 혹하게 되면 방자는 자신의 식구가 먹을 수 있는 밥과 배 비장이 타고 있는 말을 줄 것을 요구한다.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방자로서는 배 비장의 마음을 이미 읽어낸 것이다. 방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는 방자는 이보다 더 큰 요구를 하여 배 비장에게 접근하기까지 한다.

배 비장이 자신이 감추고자 했던 호색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는 방자의 역할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배 비장을 보필하는 역할이 아닌 배 비장의 감추어짐을 들춰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애, 방자야, 너와 나와 중요지담으로 말하자. 그 여자가 음식 차려 보낸 것을 보니, 쫓겨도 내게 관심이 없지는 았더라. 혹시 일이 안 되어도

31) 권순궁,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14, 반교어문학회, 2002, 52~53쪽.

말이나 붙여 보자.”

“어따가 말을 붙여 보아요?”

“그 여인에게.”

“어림없소. 그 여인 성정이 악남이요 절개가 굳으니, 그런 생각은 부디마오.”

배 비장이 방자를 붙잡고,

“되나 안 되나 편지를 써 줄 것이니, 일만 되면 구전 삼백 냥을 상급으로 너를 주마.”

방자 놈이 수전 주마는 말을 듣고, 관청에서 눈치밥으로 자란 놈이라, 돈 냥으로 얻을 생각으로 지긋이 미대는 수작으로 나온다.

“소인은 그 편지 못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애, 그게 무슨 말이나? 내가 천리 밖에 와서 마음을 털어놓고 지내는 하인이 너밖에 또 누가 있느냐?” (189-190쪽)

배 비장은 방자에게 애랑과 성사가 잘 안되어도 좋으니 말이라도 하고 싶다고 조른다. 그러나 방자는 한 번에 배 비장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배 비장은 삼백냥의 상급을 준다는 방자에게 조건을 내 걸고 시도를 하지만, 방자가 쉽게 배 비장의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다.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겠다고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방자의 속셈은 삼백냥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배 비장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예, 소인이 나리께 정리로 말하면 물이나 불 속이라도 뛰어들지 못할 마음이 아니오나, 소인이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응, 무슨 사정이란 말이나?”

“소인이 세 살에 아버지는 죽삽고 늙은 어미에게 길러져, 열 살부터 방자 구실을 하니, 한 달에 관가에서 주시는 것이라고는 돈 두 냥이 오니, 갓은 심부름에 신발 값이나 되웁니까. 먹기는 각 방 나리님네 진지 대궁이나 얻어서 어미와 연명하는 터이올시다. 소인 사정이 이러하온 바, 일이 뜻 같지 않아 소인 죽고 사는 것은 원통하지 아니 하오니, 병신되면 나리도 모실 수 없삽고 늙은 어미를 얻어먹일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하온 즉, 그런 위태한 거동 못하겠나이다.”

“그것일랑은 염려 마라. 만일 매를 맞을 지경이면 너 낫도록 하여 줄 것이요, 네 늙은 어미는 내가 먹여 살릴 것이니 염려 마라.”

하며 궤문을 덜컥 열더니 돈 백 냥을 내어 주며 하는 말이,

“이것이 약소하나, 우선 네 어미갓다 주어 양식인 팔아 먹어라.” 하고, 지성으로 간청을 한다. (191-192쪽)

결국 방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 비장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에 배 비장은 기꺼이 들어준다.

방자가 못 이기는 체하고 여쭙오되,

“그러면 편지나 잘 써 내시오.”

배 비장이 크게 기뻐 편지 써서 방자 주며, 백 번인 당부하여 이른 말이,

“일이 되고 안 되기는 네 수단에 달렸으니, 부디 눈치 있게 잘 드러라.”

(192-193쪽)

방자는 못 이기는 척 하고 애랑에게 편지를 전달한다. 휘절사건과 관련해서 배 비장과 애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휘절로 다가가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배 비장이 애랑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의 내용은 애랑에게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했다. 이미 여색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서사 첫머리에 하였으되,

‘제주도에 와 있는 무관 걸덕쇠는 머리를 조아려 재배하옵고, 외람되이 보시라고 한 통의 편지를 써 낭자 전에 부치나이다. 슬프다, 이내 몸이 호탕한 남자로 하나의 공도 이롭도 없이 제주도 수천 리에 나의 보잘 것 없는 비장으로 와서, 물색에 뜻이 없고 기암 절승을 눈 아래 희롱터니, 어제 산에 올라 한라산 꽃놀이 하고, 푸른 수풀 사이로 돌아오던 길에 옥안을 잠깐 보고 녀을 잃었노라. 그 길로 돌아와서,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지 않으려 해도 저저로 생각이 나는도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하여 뼈에 사무치게 병이 드니, 긴 한숨과 애끓는 소리는 탁문군이 품은 생각이라. 낭자의 꽃다운게 핀 몸도 언제까지 나 긴 봄날같이 젊어 있을까. 오래도록 봄을 누릴 수 없음이니. 절로 늙어 흉안이 흰머리가 되면, 세월아, 세월아, 탄식해도 다시 젊기 어려워라. 상사의 괴로움에 깊이 든 병 신농씨 백초약이 소용없다. 낭자 한 몽 양다리 사이에 있는 보신탕 약을 빌려 주어, 섬 가운데 외로운 객을 살리소서. 절개를 지키는 높은 행실 부질없고 사람을 살리어 덕을 쌓음이 으뜸이라. 장부 생사는 낭자에게 달려 있고, 낭자 몸을 허락함은 말 한 마디에 달려 있으니,

한 마디로 장부 생사를 결정하소서. 만 갈래로 얽힌 슬픈 마음을 붓으로 더 적기 어렵도다. 총망한 가운데 잠깐 적사오니, 자세히 참작하고 생각한 후 답장하옵기를 엮드려 빌로 또 뵈이라.’ (193-195쪽)

그리고 방자는 애랑에게 답장은 하되,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고 권하기 까지 한다.

배 비장이 애랑을 만나게 해 달라고 애원할 때 방자는 애랑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배 비장을 더 안달이 나도록 함으로써 방자가 배 비장의 휘절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즐기며, 배 비장보다 우위에서 배 비장을 희롱하면서 전복시키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²⁾

방자는 배 비장을 들춰내는 과정으로 배 비장이 서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았다. 배 비장을 배결덕쇠로 변용하고, 결국 배 비장에게 밤 중에 부녀 통간으로 제주 복색으로 갈아입으라고 한다.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끈으로 만든 병거지를 입을 것을 요구한다.

“나리 소견 바이 없소. 밤중에 유부녀 통간 가오면서 금의 야행으로 저리 하고 가다가는 될 일도 안 될 것이니, 그 의관 다 벗으시오.”

“벗으면 초라하지 않겠느냐?”

“초라하거든 가지 마옵시다.”

“이애야, 요란히 굴지 마라. 내 벗으마.”

활짝 벗고 알몸으로 서서,

“어떠하냐?”

“그것이 참 좋소마는, 누가 보면 한라산 매 사냥꾼으로 알겠소. 제주 사람 복색으로 차리시오.”

“제주 사람들 복색은 어떤 것이냐?”

“개가죽 두루마기에 노평거지를 쓰시오.”

“그것은 너무 초라하구나.”

“초라하거든 그만두시오.” (201-202쪽)

방자의 단호한 말에 배 비장은 오히려 당황해 하며 개가죽이 아니라 돼지 가죽이라도 입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방자는 배 비장을 애랑의 집으로

32)김영주, 「배비장전의 풍자구조와 그 의미망」, 『판소리 연구』 25, 판소리학회, 2008, 115쪽.

유도하고, 개복장으로 변신시키고 심지어 애랑의 남편으로 변장하여 배 비장을 위기에 빠뜨리기까지 한다.

남편으로 위장하여 배 비장을 놀라게 하는 것은 작품에 있어서 휘절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방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애랑과 함께 배 비장을 방자가 추락시키는 것으로 끝을 장식하고 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격하시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양반인 배 비장에게는 가장 큰 모욕적인 일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배비장전>에서 중심축은 ‘배 비장’의 휘절이다. 그 과정에서 배 비장이 혼자 힘으로 절개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 비장 옆에서 기녀 애랑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인물이 바로 방자인 것이다. 방자는 배 비장이 애랑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유도한다. 배 비장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자와 내기를 통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결국 방자의 꼬임인 애랑의 유혹이 배 비장의 눈을 멀게 하여 애랑과 방자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방자는 애랑과 같은 부류로서 사회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민중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은 방자와 애랑에 의해 배 비장이 속고, 속임을 당하며,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층민의 울분을 풀어내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즉, ‘풍자’의 대상이 관료집단인 배 비장과 상류계층인 제주 목사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배 비장의 휘절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자는 즐기며, 배 비장보다 우위에서 그를 바라보며 희롱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비웃는 것이다. 배 비장을 희롱하던 방자는 배 비장이 애랑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색욕에 앞서 방자의 조롱에 감수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관료 집단인 배 비장도 한 인간이기에 아름다운 여인에게 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자신은 다른 비장들과 다름을 주장하면서 정작 방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애랑에게 휘절을 당하게 되고, 동헌마당에서 나체로 망신을 당하는 모습은 결국 민중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즉, 하층민의 신분인 방자와 애랑의 목소리에 초점을 더 맞추어 조선후기에 하층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방자는 배 비장을 통해 사치와 향락, 허영과 탐닉을 일삼는 지배층 전체를 풍자함으로써 그 위선을 벗겨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자는 애랑과 함께 배 비장을 대표로 해서 당대에 전형적인 양반층과 지배층에 대한 경고장을 내밀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고,

권위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지배층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민중들의 생각을 언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체제 유지하기와 질서 무너뜨리기

<배비장전>의 인물들은 휘절을 둘러싸고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물들의 전형성을 언급할 수 있다. 즉, 체제를 유지하려는 집단과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집단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체제를 유지하려는 집단에 속하는 인물은 제주 목사로 압축할 수 있고,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집단은 배비장과 정비장이 질서 무너뜨리는 집단에 속한다고 보았다.

관료 집단의 큰 틀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집단이 포함될 수 있다. 관료 집단 안에서도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하며, 집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집단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물을 하나의 집단으로 포함시키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배비장전>에서 정비장, 배비장을 비롯하여 제주 목사의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제주 목사와 하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체제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비장과 배비장을 통해 제주 목사는 배비장을 휘절시키려는 의도를 찾을 수 있다.

정비장과 배비장은 부패한 관리층이다. ‘비장’이라는 계층은 지방관장이나 해외 사신을 수행하는 무관으로 조선 초기에는 단순하게 군관역할만 담당했으나 17세기 후반이 되면서 기능이 확대되고 임무가 변함에 따라 읍리들은 노동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비장하게 뇌물을 받치기도 하였다.³³⁾ 이러한 비장들의 모습으로 인해 오히려 언급하지 않으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 것이다. 관리층의 위선과 가식을 폭로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버린 셈이다. 그런 모습들이 폭로되고 가시화됨으로 인해 체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상류계층으로 대표되는 제주 목사에게는 자기 집단들 간의 거슬리는 존재가 정비장과 배비장인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 목사를 포함한

33) 이희권, 『조선후기 지방통치 행정연구』, 집문당, 1999, 41쪽.

집단들은 배 비장과 정비장을 자신들만의 사회 체제로의 이행을 시행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그 과정에서 배 비장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녀에게 혹하여 휘절되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다.

정비장과 배 비장의 휘절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두 인물은 민중들에게 다가가기에 용이했다. 결국 이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지배 계급의 위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부패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비장과 배 비장은 구관사또와 신관사또와의 관계이다. 두 비장의 공통점은 역시 호색에 초연해지지 못하고 결국 풍자의 대상이 되어 조롱거리가 되며, 민중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점이다.

먼저 정비장의 살펴보자. 역시 작품의 초반에 애랑과의 이별하는 장면에서 애랑의 요구에 남김없이 옷, 칼, 심지어는 앞니까지 애랑에게 준다. 이러한 정비장의 모습을 통해 지방 관료의 부정한 재물뿐만 아니라 기생에게 농락당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대변하고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두루마기를 애랑이 베개 삼아 베고 자고 싶다며 달라고 요구한다.

...중략...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갓두루마기 소녀를 벗어 주고 가시면, 나으리님 가신 후에 날이 가고 달이 갈제,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꽃 떨어지는 수심 봄이 가고, 방초 하절, 추절 들어 뜰에 난 단풍나무 잎 떨어질 제, 낙엽은 소슬하고 옥창 밖에 서리 칠 제, 긴 가을 밤 적막한데 독수공방 잠 못 들어 전전불매하올 적에 원앙금침 냉한 베개 비치킴 얇은 이불을 두 발로 미적미적 툭툭 차서 물리치고, 주고 가신 갓 두루마기 한 자락은 펼쳐 깔고 또 한 자락 흠씩 덮고, 두 소매는 착착 접어 베개 삼아 베고 자면, 나으리 품에 누운 듯 그것인들 아니 다정하오?”

정비장이 그 말 듣고 양피갓두루마기 활활 벗어 주며 이른 말이,

“맹상군은 호백구를 진왕의 애첩 행희에게 주었고, 수가는 일저포를 범숙에게 주었으니, 잊을 수 없는 옛 정 구 아니냐? 나도 이 옷 너를 주니, 깔고 덮고 베고 잘 제 부디 나를 잊지 마라.” (130-132쪽)

애랑의 요구는 계속된다.

“여보 나으리 들으시오. 소녀 비록 여자이오나 옛 글을 들었으니, ‘유인이 오롱거 하니 보검이 치친금이라.’ 그 칼이 값이 많사오나 ‘이별할 때

칼을 뽑아 서로 주고 받는다’ 하니, 평생 한 마음 그 아니 중하온가?” 나
우리가 차신 철병도를 소녀에게 끌러 주고 가요.” (133-134쪽)

심지어 정비장의 숙주 창의·분주 상하 의복을 비롯하여 앞니까지 내어
달라고 한다.

“나으리 여보 내 말씀 듣고. 나으리가 아무리 다정타 하여도 소녀 뜻만
못 하오니, 애닭고 그 아니 원통한가. 그는 그러하거니와 하얗게 꾸민 벽
과 비단으로 바른 창에 마주앉아 서로 보고 당짓당짓 웃으시던 앞니 하나
빼어 주오.”

정 비장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제는 부모의 유체까지 헐러 하니, 그는 어디에 쓰러느냐?”

애랑이 여쭙오되,

“호치 하나 빼어 주면 손수건에 싸고 싸서 백옥함에 넣어 두고, 눈에 암
암 귀에 쟁쟁, 임의 얼굴 보고 싶은 생각 나면 종종 내어 설움풀고, 소녀
죽은 후에라도 관 구석에 지녀 가면 합장 일체 아니 될까. 그것인들 아니
다정하오.” (143-144쪽)

결국 정비장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광경은 관료의 회화화를 보게
되고, 여색에 초연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애랑은 정비장
에 대한 애정보다는 끊임없는 나락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이러
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색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비단 정비장 뿐만이 아니다. 배 비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배 비장은 방자와의 내기를 통해 애랑과의 접근을 시도하며, 접근하는
매개체는 물론 애랑과 방자이다. 방자에게 서신을 통해 애랑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결국 애랑과 함께 동침하게 된다.

...중략... 깊은 밤 등불 아래 앉은 저 여인, 나이 겨우 이팔의 고운 태도
라. 켜놓은 등불이 밝다 한들 너를 보니 어두운 듯, 피는 복숭아꽃이 곱다
하되 너를 보니 무색한 듯. 저 여인 거동보소. 김해 간죽 백통관에 삼등초
를 서뽀 담아 청동화로 백탄 불에 사뽀 질러 빨아 낸다. 향기로운 담배
연기가 한 오라기 보랏빛으로 피어나니 붉은 안개 피어 돌는 듯, 한 오리

두 오리 풍기어서 창구멍으로 돌아나온다. 배 비장이 그 담뱃대를 손으로
움켜어 먹다가 생 담뱃대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재채기 한 번 악각 하니,
저 여인이 놀라는 체하고 문을 퐼쩍 열뜨리고,

“도적이야.”

소리하니, 배 비장이 영겁결에,

“문안 드리오.”

저 여인이 보다가 하는 말이.

“호랑이를 그리다가 숨쉴 서툴러 강아지를 그림이로고. 아마도 뉘집 미친
개가 길 잘못 들어 왔나보다.”

인두판으로 한 번 지끈 치니, 배 비장이 하는 말이,

“나는 개가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배걸덕쇠요.”

저 계집이 웃고 나서며,

“이 밤에 기약한 임이 왔네. 손목잡고 들어와서 자리 하고 불을 끄세.”

두 사람이 의복을 활활 벗고 원앙금에 두 몸이 한 몸 되어 사랑 동포 좋
을 씨고. 음악도 없는데, 네 발이 삼경 달에 춤을 춘다. 대단 이불 속으로
한 번 몰아치는 바람이 일어나며, 양다리 사이의 알시 못에 일목 주룽이
굽이치며 백화담담 물결친다. (206-208쪽)

배 비장이 그토록 원했던 기녀 애랑이었다. 그 동안 자신이 스스로 자
처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는 계기가 된다. 결국 여색에
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성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애랑과의 하룻밤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방자가 아니다. 그
뒤에 일어날 계획을 배 비장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방자 놈이 언성을 바꾸어 고향치고 들어가며,

“불 켜 놓고 문 열어라. 향문불량은 내 막으마.” 소리 하니, 저 여인이
놀라는 체 온음을 떨며 황황할 제, 방자 놈이 언성 높여,

요사스럽고 고안 년, 내 몸 하나 움직여 바깥 출입하면 문 앞에 신 네 짝
떠날 날이 없구나. 어느 놈과 둘이 미쳐서 두런두런하느냐?”

이 연놈을 한 주먹에 뼈를 부스러뜨려 죽이리라.

장담하고 들어오니, 배 비장이 혼겁하여 황황하나, 문이 하나밖에 없는 집
이라 도망할 길 발이 없어, 알몸으로 이불 쓰고 여자더러 말을 하되, 죽어

도 문자는 쓰던 것이었다.

“야장과반에 내호개문하니, 호령자는 수야오?”

저 여인이 답하되,

“오가출두천이오.”

“그게 본부 낭군이요? 성품이 어떠한고?”

“성정은 제일 악남으로 미련하기는 도척이요, 기운은 항우 같소. 술 즐기고 새암 발라, 제 마음에 화를 내면, 대낮에도 칼을 뽑아 칼 쓰기를 흥문연 번쾌 방쾌 쓰듯, 상산 조자룡 긴 창 쓰듯, 칼을 한번 확 찌르면 맹호라도 뼈가 부스러지고 철벽이라도 뚫어지니, 그대 말고 옛날 장비 복판 때는 범강과 장달이라도 살아 보기는 틀렸소이다.

불쌍한 그대 목숨 나 때문에 죽게 되니, 내가 죽고 살릴 터면 그 아니 살려줄까?” (209-211쪽)

방자는 애랑의 남편으로 가장하여 배 비장을 당황스럽게 만든다. 배 비장은 애랑의 낭군으로 착각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랑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심지어 피할 곳을 찾기까지 한다.

이미 큰 자루를 준비해 둔 애랑은 배 비장을 자루속에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방자는 들어가 있는 배 비장임을 알면서도 계속 놀리는 장면이 계속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 비장은 자신의 체면이나 위선보다는 오직 살려는 일념하에 발버둥치고 있다.

배 비장이 절에 간 새악시 모양이라 반색 못하고 들어가니, 그 계집이 배 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 자루 끝을 모두어 상투에 감아 매어 등잔 뒤 방구석에 세워 놓고 불 켜 놓으니, 저놈이 왈각 문을 열며 서뽀 들어서 사면을 둘러보더니

“저 방구석에 세워 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알아 무얼 할라오?”

“이년아,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할 것이지, 반색이 무엇이냐? 주리방 망이 맛을 보고 싶어서?”

저 계집이 꼴을 내어,

“거문고에 새 줄 알아 세웠습네.” (212-213쪽)

배 비장은 이제는 자신이 거문고인척 하며 자루 속에서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구대 정남이며, 관리로서의 체면은 이미 사

라졌다.

더욱이 대중은 배 비장이라는 인물을 앞세워 그 당시 관료들의 부패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집단들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체면과 위선을 중시하는 집단이 과연 여색에 초연해질 수 있는지를 말이다. 결국 배 비장의 훼손되어가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내고 그 모습을 통해 민중들은 배 비장 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집단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집단을 몰락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이다.

애랑에게 이사를 시켜달라며 피나무 궤로 들어간다. 일단, 배 비장이 들으라는 듯이 불로 태우려하고, 톱으로 궤를 자르려고 하고, 화침으로 찌르려고 하자 배 비장은 위기의식을 느낀다.

“아무것도 흥황없다. 내 아까 눈이 절로 소로로 감기면서 꿈을 꾸니, 백발 노인이 나를 불러 이르되,

‘네 집에 거문고와 피나무 궤가 있느냐?’ 하시기로, 내 말이 ‘있노라’ 한즉, 그 노인이 가로되, 금신이 궤 속에 들어가 있어 여러 가지로 일을 저지르니, 그 궤가 있으면 너의 집이 망하고 없으면 너의 집이 흥하리라.’ 뚜렷이 꿈에 보이니, 저 궤를 불에 태워 버리리라. 쥘 한 동 갖다 불 놓아라.”

이 때, 궤 속에 든 배 비장이 그 말 듣고 탄식하되.

“인제는 바로 화장한다. 이 일을 어찌할꼬?”

...중략...

저 여인이 궤를 붙들며 하는 말이,

“업케는 임자가 가져가면 나는 폐가하라는가? 이 궤는 못 놓겠네. 집안 살림 차지일랑 임자가 하고 업케는 나를 주소.”

저 놈이 하는 말이,

“그럴 터면 양편이 가난하지 않게 이 업게 한가운데 먹줄 맞춰 갈라내어 한 도막씩 가진다면, 그 아니 평등할까? 톱 대어라, 갈라 보자.”

하더니, 큰 톱 들어 마주 잡고,

“다리어라 톱질이야. 슬근슬근 다리어라. 행실 부정 몸쓸 년을 내 모르고 두었더니, 오늘에야 알았구나. 월하 노인이 맺어 준 처음 연분 이 톱으로 잘 켜보자. 이 궤를 갈라내어 윗도막은 너를 주고 아랫도막 내가 지면, 나는 소부되고 너는 대부되어 나눈 복대로 각기 살자. 이 톱 바빠 다리어라.”

좌르르 점점 내려가니, 배 비장이 궤 속에서
 ‘아뿔사! 벌써 톱밥이 드는데, 인제는 바로 요참한다.’
 겁결에, 소리 질러 이르기를,
 “여보소 미련하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살던 게 집에
 게 그 궤 모두 주오. 도막 자르면 반을 잃으니 아니 되오?”
 이 놈이 톱 내던지고 하는 말이,
 “아뿔사, 업케신이 도생하여 사람이 되었으니 화침으로 찌르자.”
 하고 끝 좋은 가락꽃이를 불에 달구어 쑥 찌르니, 배 비장의 왼편 눈으로
 내려온다.
 배 비장이 기가 막히어
 ‘아뿔사, 인제는 몸통을 궤어 죽나보다. 죽기는 일반이니 악이나 써 보리
 라.’ 하고, (216-221쪽)

배 비장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죽게 된다고 생각하자,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에서 방자와 애랑은 배 비장을 사이에 두고 웃지 않을 수 없다. 즉, 방자와 애랑은 궤절의 주도자이든 유도자간에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배층에 대한 풍자이며 고발한 것이다. 그것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과정에서 양반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색인 것이다. 다양한 양반들 중에서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배 비장과 같은 양반을 민중들의 시각으로서는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지배층에게는 부와 명예도 중요했지만 자신의 위신이 격하되는 것은 더욱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위신이 추락한다는 것은 결국 배 비장이 속해있는 집단으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배 비장은 배 궤 속에 있는 자신을 태우고 사령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사령은 부정탄다며 상앗대로 밀치며 풀어준다.

궤 속에서 고함쳐 긴 소리로,
 “저기 가는 저 배 말 좀 문세에.”
 곁에 있던 저 사령 놈이 사공인 체 하고 썩 나서며,
 “무슨 말이요?”
 “저기 가는 배가 어디 배라나?”
 “제주 배라네.”

“무엇 실었스나?”

“미역·진북·해삼 실었습네.”

“가지 말고, 내 말 듣게.”

“어, 무슨 말인가?”

“어렵지만, 이 켈 좀 실어다가 죽을 사람 살려 주오.”

한참 이리 수작할 제, 한 놈이 나서며 하는 말이,

“무변 대해 저 수중에 켈 속에서 나는 말소리 괴이하다. 우리 배에 부정 탈라.상앗대로 떠밀쳐라.”

배 비장이 하는 말이,

“나 잡것 아니오. 사람이니 살려주오.”

“사람이거든 사는 곳과 성명을 일러라.”

“제주의 배결덕쇠요.”

한 놈이 나서며 이른 말이,

“제주라 하는 곳이 좋은 물건과 미녀들이 많은 땅이라. 분명 유부녀 통간 갔다가 저 지경이 되었지?”

“예에 옳소. 뉘신지 모르겠거니와 제대로 아웁니다.” …중략…

그자가 하는 말이,

“우리 배에는 부정 탈까 못 올리겠고, 켈 문이나 열어 줄 것이니, 능히 헤엄쳐 갈까?”

“그것일랑은 염려 마오. 내가 용산과 삼개 왕래할 제 개헤엄 날이나 배웠소.”

“이 물은 잔물이라, 눈에 들면 멀것이니 눈감고 헤어라.”

“눈은 생전 멀더라도 목숨이나 살려주오.”

그 자가 하는 말이,

“그럴 지경이면, 눈이 멀더라도 나를 원망은 마시오.”

하고 함정같이 잠긴 금거북쇠를 툇쳐 열어 놓으니, 배 비장이 알몸으로 썩 나선다. (226-229쪽)

켈 문을 열어주자, 알몸으로 나서게 된다. 배 비장이 눈을 뜨고 다시 주위를 살펴보자 동헌 마당에 삼공형과 전후 좌우에 기생들과 육박 관속 노령배가 일시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참는 광경으로 결말을 짓고 있다.

한참 이 모양으로 헤엄쳐 갈 제, 동헌 뗏돌에다 대가리를 딱 부딪치니라.

배 비장이 눈에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뜨고 살펴보니, 동헌에 사또 앉고

대청에 삼공형이며 전후 좌후에 기생들과 육방 관속 노령배가 일시에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참는 것이 웃음이라.

사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네 이 모양이 웬일인고?”

배 비장이 어이없어 고개를 숙이고 여쭙오되,

“소인의 조상 무덤이 동소문 밖이 읍더니, 근래에 곤손풍이 들어 이 지경 되었나이다.” (230-231쪽)

배 비장은 전형적인 백성들의 웃음거리와 조롱의 대상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일반 백성이 아닌 ‘비장’이라는 지방 관료를 보좌하는 말단 관료이기에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한낱 하찮은 부패하고 위선자로서만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두 인물을 내세워 <배비장전>에서는 정비장과 애랑의 이별장면과 배 비장과 애랑의 훼손사건을 통해 두 인물이 훼손과 관련하여 큰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비장과 배 비장이 기존 체제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반면에 체제를 고수하려는 인물은 제주 목사이다. 훼손을 하는데 일등 공신은 제주 목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비장과 배 비장을 자신들의 집단에서 일탈하고 있다고 느끼고, 배 비장의 훼손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제주 목사 김경은 십오 세부터 생원과 진사, 장원급제를 한 인물로,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문필 재력이 비범하고 이십 세도 되기 전에 장원 급제하여 제주 목사가 된 전형적인 양반 계층의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제주 목사를 소개하는 장면이다.

한양에 김경이라 하는 양반이 있으되, 문필 재력이 비범하여 십오 세에 생원·진사 하 이십 전에 장원급제라. 초입사에 한림·주서·이조·옥당·승지나 당상으로 방백을 바라더니, 대신 서계 끝에 제주 목사가 제수되니라. 김경이 즉시 도입길을 떠나려고 이·호·예·병·형·공 육방 소임 골라 뺄새, 서장 사는 배 선달을 장막으로 급히 불러 예방 소임 맡기시니,
...중략... (109쪽)

제주 목사는 그 당시 상류계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류층이기는 하나 배 비장을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그를 훼손시킬 궁리를 하

고 배 비장을 한층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중략… 이와 같은 곡절을 사또가 잠깐 들으시고 일등 명기를 다 부르신다. 기생을 부르되 안책을 들여놓고 적구하던 본새로 부르던 것이었다.

“위성에 아침비 내려 먼지가 축축이 젖으니 객사 앞에 버들 빛이 푸르러진다, 유색이. 가냘픈 초승달 그림자가 사창에 비추었다, 초월이. 술집이 어디냐고 물으니, 목동이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킨다, 행화, 낭군을 생각하나 볼 수 없구나, 반월이. 그윽한 대밭에 홀로 앉아 거문고를 타니, 금선이. 배를 타고 무을 따라가니 무릉 도원이 여기로구나, 홍도, 맺잇은 사철내내 봄빛이니, 죽엽이. 꽃빛처럼 얼굴이 곱다, 화색이. 달에서 내려온 신선처럼 태도가 곱다. 월하선이. 즐풍류에 여름 산봉우리에 걸린 구름인가, 봉하운이. 가을 달밤에 노래가 으뜸이니, 추월이. 집 안 가득히 봄빛이 드니 붉은 연꽃 피는구나, 홍련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 신선, 강선이. 봉래산과 방장산가 영주산에 사는 신선, 영주선이, 색을 즐기는 음덕이. 헛된 서방에 탕진이. 대방 기생에 억란이. 행수 기생에 차질예. 제일가는 미모에 노래와 춤이 능란하다. 애랑이.”

“예, 등대하였소.”

사또께서 분부하시되,

“너희 중에 배 비장을 기쁘게 하여 웃게 하는 자 있으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니, 그리할 기생이 있느냐?”

그 가운데 애랑이 여쭙오되,

“소녀가 불민하오나 사또 분부대로 거행할까 하나이다.”

사또가 이른 말이.

“네 능히 배 비장을 훼손시킬 재주가 있으면 제주 기생 중에 인재가 있다 하리라.” (157-159쪽)

여러 기생을 앉혀 두고 그들 중 누가 배비장의 결심을 꺾을 수 있을지를 묻는 장면이다. 제주 목사는 기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제주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한 날, 배비장이 여러 비장들의 권유에도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게 되자 제주 목사의 비위를 건드려서 배 비장을 훼손시킬 의도가 엿보인다.

사또, 각 방 비장과 의논하고 날이 밝아 올 무렵에 명을 내려 한라산 꽃놀이 간다. 사또 행장 차린 위의 불작시면, 용머리 새긴 주홍빛 가마에 호피

돋움 끼쳐 타고, 전월 부월 삼영 집사는 순시기와 영기 벌여 꽃고 좌우로
 흰화한다. 녹의 홍상 미녀들은 백사 한삼 높이 들어 풍악 중에 노닐며,

“지야 자자”

하는 소리, 맑은 나무와 온갖 꽃이 어우러진 숲에 육각성을 섞어 띄워 산
 과 물에 울려 퍼져 잣았는데, 때는 새가 우는 봄이라.

온갖 새가 울음 운다. ‘후루룩, 벽궁, 꼬고약, 꺾, 푸드득, 숙궁, 소쩍다. 명
 그렁, 비비죽, 부러귀, 가부락갑죽, 으흥, 접동’ 우는 것은 온갖 꽃이 핀 산
 에 여러 새가 울이요, 잔잔한 푸른 시냇물에 불어 오는 따듯한 봄바람 좋
 으니, 얼크러지고 뒤틀어진 가지마다 잎잎이 뒤적이어 우쭈 활활 굽니는
 것은 긴 개울과 푸른 숲에 가지 드리운 버들이요, 복숭아 꽃 황하에 흩어
 져 흐르는 격으로 굽이굽이 휘휘 돌쳐 ‘우루렁, 출렁, 풍풍’ 뒤질러 ‘자
 르를, 킁킁’ 흐르는 것은 장천 폭포 아홉 굽이를 도는 개울이라. 청산 녹
 수 돌아드니 높고 높은 봉래산이 여기로다.

사또, 소나무 아래에 가마 놓고 경계를 살펴보니, 제주 사방은 푸른 물결
 과 긴 하늘이 한 가지 색깔로 들렀는데, 쌍쌍이 흰 갈매기는 홀리 뜨고,
 점점이 어선은 너른 강에 돛을 달고 팔팔이 드나든다. 맑은 바람을 쏘이면
 서 적벽강에 뱃놀이하던 소식이 이 곳을 보았다면 적벽강에 어이 놀며 등
 왕각에서 노래와 춤을 즐기던 왕발이 보았다면 ‘낙하여고목제비’를 여
 기 와서 읊으리라. 산경 수경 제주 춘경 무한 풍경이 좋을씨고.

사또와 모든 비장이 명기·색기에게 술을 부어 감홍로·계당주 취게 먹고
 춘흥에 겨워 노닐 적에 배 비장은 가장 청고한 척하고 소나무 정자 바위
 위에 외면하여 홀로 앉아 남노는 것을 비양하고,

...중략... (160-162쪽)

제주도에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목사는 제주도에 한라산으로 유
 람을 떠나고 호사스럽게 행렬을 한다. 즉 첫날부터 기생을 불러 주연을
 만들고 한라산으로 유람만 즐기러 가는 모습과 배 비장을 탐탁치 않게 생
 각함으로써 다른 비장들과 함께 골탕먹이려 하는 인물인 것이다. 제주 목
 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편이 없었기에 배
 비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훼손시키려고 한 이유도 포함될 것이
 다. 결국 훼손사건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개인 대 개인의 훼손이 아닌 목
 사를 대표로 하는 관료 집단과 개인의 관계로 더 나아갈 수 있다.

<배비장전>에서의 제주 목사는 배 비장을 양반 관료 사회에 편입시키
 려는 의도로 훼손 계획을 꾸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주도에 참석한

배 비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뛰쳐 나가는 것을 보고, 휘절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 목사가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힘을 방자에게 넘겨 주고 있다.³⁴⁾

휘절 내기가 방자에 의해 성립되었지만 직접적으로 배 비장을 휘절시키는 인물은 애랑이라면 애랑은 제주 목사의 사주에 의해 이 사건에 개입한 인물이므로 결국 제주 목사가 휘절의 음모를 시작했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 목사는 상위계층의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봉건사회의 부패성과 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

결국 제주 목사는 애랑을 수단으로 하여 사건에 개입하는 인물인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풍자의 주체보다는 풍자의 대상이 되고 말았지만, 이미 제주 목사를 통해 관리들의 부패성과 부도덕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정비장과 배 비장은 일관된 행동으로 당대의 지배층을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풍자하고 있다. 시공일관 우습게 진행되는 이야기는 방자로 인해 배비장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써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욕구를 억제하고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다지던 지배층도 별단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관료집단의 단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제주 목사는 전형적인 상위계층으로 자신과 비장들에게 집단 문화에 참여하지 않는 배 비장을 동일집단 내에서 거슬리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제주 목사의 김경을 통해 관료집단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휘절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라산에서 배 비장이 휘절의 기미를 보이자 다른 비장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꼬기도 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관료들과 목사가 지켜보는 대낮에 관아의 뜰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형편없이 무너지고 마는 광경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관료집단 테두리 안에서 무언의 약속인 셈이다.

배비장이 아내와 선부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애랑을 가까이 하기

34) 나경운, 「남성휘절 소설의 비판의식 연구: 배비장전 · 오유란전 · 삼선기의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31~32쪽.

까지는 방자의 공헌이 지대하지만, 같은 집단으로 포용해줄 것 같으나 배비장이 훼손하는데 시작하는 인물은 제주 목사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 애랑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제주 목사의 김경이 소개된다. 제주 목사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명기 명창을 서로 골라서 즐기는 모습은 조선후기에 관리들의 부패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관료들의 집단에서 제주 목사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집단체제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당시 관료들을 향한 풍자는 배비장에서 그치지 않는다. 제주도에 도착한 뒤 한라산으로 유람을 떠나는 호사스러운 행렬과 술자리를 마련하는 장면은 신임으로 부임하는 제주 목사로서의 민생을 살펴보지 않고 관광과 주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은 관료 집단에 대한 비판 어린 시각이 엿보인다.

사또께서 정신없이 앉아 그 거동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사공을 불러 분부한다.

“용왕이 이제에 제수를 달라나 실으니, 고사나 극진히 드려 보아라.”

사공이 분부 모셔 거행한다. 영좌·이좌·화장·격꾼·등이 머리 감고 목욕 정히 하고, 허리칸에 배석펴고, 고물에는 청신기·홍신기를 좌우 편에 갈라 꽂고, 큰 고리에 백미 담아 사도 상의런 벗어 놓고, 온 쇠머리와 통돼지 잡아 큰 칼 꽂아 그린 듯이 받쳐 놓고, 젓메 공양 올린 후에 섬 쌀 풀어 물에 넣고, 도사공의 정성으로 나는 큰북, 용충줄에 높이 달고 북채를 두 손에 갈라 잡고 두리 둥둥 북을 치며 축원한다.

“천지 건곤 일월 성신, 황천 후토 신령 녹성군이 감동하와, 한양 성내 북쪽 송현에 사는 김씨라는 남자 제주 신관 사또를 살릴소서. 두리둥둥. 동해 광리·서해 광덕·남해 광연·북해 광택, 물 위의 용녀부인, 물 아래 하수 용왕, 참군 영감 내림하와 제주 바다 건너갈 제 순풍을 빌리소서. 두리둥둥”

고사를 드린 후에, 사또가 자탄하는 말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들르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니, 하우씨 양천탄을 내게도 부쳤도다.”

이윽고 달이 밝으며 무결이 잔잔하니, 사또가 크게 기뻐하는 말이,

“‘달이 중천에 높이 떠 있는 달밤에 홀로 배를 저어 가는데, 물결은 일지 않고 잔잔하다. 물에서 사는 것이 산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

말한다.’ 를 옛말로 들었더니, 삼정승의 벼슬자리와도 바꾸지 않을 경치 좋은 이 강산을 오늘에야 알리로다.”

어연간 제주성을 다다르니, 지세도 좋거니와 풍경이야 더욱 좋다.

환풍정에 배를 내려 화북진에 좌기하고, 사방을 둘러보니 제주가 십팔경이라. 제일경은 망월루로다. …중략… (121-124쪽)

이러한 모습은 하층민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관료집단의 병폐가 여실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신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임 첫날부터 기생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하고 즐기는 모습은 전형적인 양반사회, 즉 집단체제의 관행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장이나 배 비장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정비장이나 배 비장이 한심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으로 편입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일탈해버리자 낙인된 것이다. 집단에서 한 번 낙인되면 그 집단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운 것이다. 제주 목사가 속해 있는 집단은 항상 사회적으로 변화를 지향하기보다는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일탈하거나 변화하는 조짐이 보이면 그 체제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주 목사는 배 비장에게 보기 좋게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조망하여 시각을 확대해 보면 저변에 깔려있는 민중의 의식을 읽어 낼 수 있다. 곧 작품 표면에서는 서로 다른 집단이 배 비장이 경직성과 위선에 대해 함께 훼손시키고 웃고 있으나, 작품 이면에서는 관료 사회 전체의 향락과 부패를 풍자하는 민중의식이 일관되게 큰 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³⁵⁾

따라서 제주 목사는 훼손을 하계꿈 유도하여 자신의 집단에서 무너지짐을 보여주며, 정작 자신은 그 체제를 유지하여 일탈을 꿈꾸는 자들에게 다시는 집단 체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당대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35)김영주, 「배비장전의 풍자구조와 그 의미망」, 『관소리 연구』 25, 관소리학회, 2008, 120~121쪽,

IV. <배비장전>의 문학사적 의의

18세기 중엽부터 신분제가 동요됨에 따라 계층 간의 신분대립 및 변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격동기에 대담한 소재인 훼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배비장전>과 같은 소설의 등장은 소설사에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기녀와 주변인물들이 양반을 유혹하여 정남임을 자처하던 양반 관리를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서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비장전>은 조선 후기 사회 인식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지배층의 가려진 내막이 정비장과 배 비장을 통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 비장의 속내를 들춰내는 인물이 하층민을 대표로 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 기녀 애랑과 방자라는 두 인물을 내세워 지배층을 비판하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서 민중에게는 통쾌감을 맛보게 하는, 지배층에게는 체면을 격하시켜 자신들의 집단에서 일탈시킬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조선 후기에 양반의 신분적 위치가 서서히 몰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비장전>은 배 비장의 훼손이라는 일련의 고리를 작품 전체에 깔아 놓고 있다. 즉, 지배층이 감추고 있던 그들의 부패성을 전체를 파헤치고 풍자하는 전체적인 의미망을 인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만들어낸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민중의 의식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 목사가 자신의 체제에서 일탈하려고 하는 배 비장을 훼손시키기 위해 방자, 애랑을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포함한 지배층으로서의 들춰내고 싶지 않은 면인 향락, 위선, 체면만 중시하는 모습들이 폭로되고 만 것이다. 작품의 표면상으로는 배 비장을 알몸으로 내쫓아 망신을 당하고 웃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을 멀리서 보고 있는 피지배층의 눈으로는 지배층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지적되는 것이다.

민중의 입장에서 배 비장은 비록 말단 관리이기는 하지만, 그의 거만함에 방자와 애랑으로 대표되는 집단은 마땅히 농락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되어 결국 배 비장을 비꼬며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한다.

민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제주 목사를 필두로 관료문화 전반에 대한 풍자를 보여준다. 지배층 사이에 만연된 퇴폐문화를 긍정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배 비장을 전락시키는 제주 목사와 그들의 문화를 풍자의 시선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질서가 엄숙하다고 믿고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줄 것이라는 신뢰의 무너짐과 향락적이고 퇴폐적으로 변질된 질서에 대해 이들은 풍자와 해학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배비장전>은 조선후기 관료문화의 부정적인 단면과 그것에 대한 민중 의식의 한 차원 높은 풍자로 휘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기본적인 틀 안에 갇혀있는 미비한 신분이 율등한 신분층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문학은 시대를 담고 있기에 당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반영된 시대를 엿볼 수도 있다. 작품이 시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느냐에 따라 시대를 바라보는 수용자의 태도도 분명 달라질 것이다.

배 비장을 휘절시키는 사건에 관계하는 애랑과 방자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과 목사 집단, 그 사이에 휘절을 당하는 집단인 비장집단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애랑과 방자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은 지배층의 위선을 들춰내어 비웃어주기 위한 것이다. 애랑이 기녀임을 이용하여 여색에서 헤어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양반층에 대한 민중의 시각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제주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집단의 경우는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정비장과 배 비장의 태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배비장전>으로 묶이는 공통분모는 부패한 관료사회에 대한 비판과 배 비장이라는 한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휘절사건을 초월하여 이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당대의 관료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 비장이 기녀 애랑에게 유혹되지 않고 여색에 초연해지려고 하는 모습, 유혹하려는 기녀 애랑, 그것을 들춰내서 폭로하고 풍자로 엮어서 웃음으로 뽐어내는 방자, 정비장과 배 비장을 자신의 입맛에서 제외시켜 버리려는 제주 목사의 모습은 당대의 각 계층들을 왜곡되지 않고 현실감있게 표현하고 있어서 <배비장전>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조선 후기 민중들은 지배층에 대한 시각이 다가왔다. 자신의 지위가 상승함에 부합하여 민중의 입장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풍자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지배층이자 관료집단이기 때문에 <배비장전>이 작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배비장전>은 비록 문학 작품으로서 활발한 전승과 흥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조선 후기 관료 문화의 부정적 측면과 그에 따른 민중 의식을 그대로 표출해내고 있다는 점과 남성혜절설화에서 잠깐 언급되어 자취를 감추었다가 후대 소설 장르에 와서 문학적인 정체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배비장전>의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상으로 <배비장전>의 형성 동인과 혜절 양상을 인물을 통해 살펴보았다.

<배비장전>에 그려진 세계는 18세기 후반 조선의 지배질서가 혼란을 보이던 무렵의 관료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배비장의 혜절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배비장전>은 판소리 다섯마당에는 속하지 않지만, 7마당 중의 하나로 세대적 성격이 강한 작품인 <배비장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이유는 몇몇의 설화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혜절’이라는 소재를 삼아 조선 후기 혼란기에 최초로 당시 사회를 반영하여 후대에 생성된 소설이라는 장르에 까지 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남성혜절소설 중에 <배비장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한 인물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혜절 양상을 인물을 통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인물을 통해 배비장이 혜절되는 모습을 고찰해보았다.

혜절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남성혜절소설 중에 인물이라는 요소가 가장 잘 드러나는 텍스트를 <배비장전>으로 삼았다.

먼저 II장에서는 <배비장전>의 형성 동인을 살펴보았다. 시대 상황의 반영과 남성혜절설화의 수용을 형성 동인으로 보았다.

<배비장전>이 등장했던 시기는 조선 후기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으로 격동기였다. 그러한 혼란기에 소설장르는 그 당시 세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민중들에게 널리 읽혔기 때문에 당시 신분제도의 모순이나 붕괴를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양반층의 몰락과 방자와 애랑의 신분의 상승을 인한 양반층에 대한 도전, 망신당하는 모습들, 아울러 여성으로 대표되는 기녀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배비장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배비장전>이 남성훼절설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명검지해>의 <기룡장백>과 <태평한화골계전>의 <발치설화>, <동야회담>의 <미륵설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녀를 선발하여 관리를 훼절시키려는 음모, 훼절된 남성은 끝내 기생의 요구대로 이빨을 내어주거나 케 속에 들어가 망신 당하는 서사구조는 위의 설화 모두 공통된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배비장전>이 영향을 받아 복합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배비장전>의 인물 훼절 양상을 논의해 보았다. 크게 배 비장이 훼절되는 과정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인물을 나누어보았다.

전자의 경우는 배 비장과 애랑, 방자로 논의했다. 후자의 경우 배 비장, 정비장과 제주 목사로 배치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속내를 숨기는 배 비장과 그것을 들춰내려는 인물들이 애랑과 방자와의 관계이다. 이들의 신분은 애랑은 기녀이고 방자의 신분은 천민집단에 속한다. 즉 하층민으로서 배 비장을 훼절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층민이 관리 집단을 들춰내고 조롱하며 망신을 주고 싶은 것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배 비장과 정비장의 하급 관리와 제주 목사로 대표되는 상류 계층에서 보았을 때는 하급 관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즉, 제주 목사는 기존의 체제를 고수 하는 집단에 속하고 있고, 그 집단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비장과 정비장은 그러한 체제를 흔드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제주 목사는 이 훼절 사건에 도모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체제를 유지하는 제주 목사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배 비장과 정비장으로 인물이 구성될 수 있었다.

마지막 IV에서는 <배비장전>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비 설화 및 문헌 설화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후대에 이르러서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담한 소재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결국 <배비장전>은 배 비장을 훼손시키고 지배층을 비웃어주기 위한 인물로 애랑과 방자를, 제주 목사를 대표로 기존의 질서를 고수하려는 성향과 그 곳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배 비장과 정비장의 구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은 배 비장을 훼손시키려는 데 모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배 비장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민중들과 양반들의 동일한 작품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훼손 사건을 중심으로 이질적인 풍자들을 통해 전체적으로 부패한 관료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시각은 배비장이라는 한 개인의 훼손 사건을 뛰어넘어서 작품이 반영하고 있는 당대의 관료문화 전체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배비장전>은 훼손 양상이 인물들이 표출해내고 있는 모습들이 그 당대 사회상을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던 작품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또한 <배비장전>은 우리에게 대담한 소재로 서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는 점에서 웃음과 풍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방자와 애랑의 관점에 선 하층민중의 웃음과 목사와 배 비장을 둘러싼 관료층의 웃음이 그것이다. 또한 발치설화나 미귀설화 등 설화까지 고려해본다면 <배비장전>의 웃음은 하층민들까지 호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배비장전>을 주로 인물을 통한 훼손 양상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기존의 연구 관점에서 벗어나서 논의를 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

<배비장전>은 소설사적으로, 더 나아가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문학 작품이다. 그러므로 <배비장전>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금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배비장전>의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8.
- 고순희, 「18세기 가사에 나타난 기생 삶의 모습과 의미」, 『고전문학 연구』 10,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5.
- 권경숙, 「고소설에 등장하는 범죄형 인물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 - 숙영낭자전, 운영전, 배비장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5,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6.
- 권두환, 「배비장전 연구」, 『한국학보』 5, 일지사, 1979.
- 권두환 · 서종문, 「방자형 인물고- 판소리계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일조각, 1978.
- 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 -----, 「배비장전의 풍자와 제주도」, 『반교어문연구』 14, 반교어문학회, 2002.
- -----, 「배비장전의 풍자층위와 역사적 성격」, 『반교어문연구』 7, 반교어문학회, 1996.
- 권영석, 「조선후기 소설의 풍자성 연구: 양반전과 배비장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 광정식, 「작중인물을 통해 본 배비장전의 양면성: 방자와 사또의 역할을 중심으로」, 『어문학교육』 7, 한국어문교육학회, 1984.
-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성 표현 관습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 김동협, 「배비장전 연구」, 『동양문화연구』 11,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84.
- 김복희, 「오유란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김세경, 「고소설에 나타나는 기녀 욕망 연구- 동선기, 유록전, 옥루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김승중, 『한국현대소설론』, 신아, 1998.
- 김영주, 「양반전과 배비장전의 이중적 풍자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5.
- -----, 「배비장전의 풍자구조와 그 의미망」, 『관소리 연구』 25, 관소리학회, 2008.
- 김용희, 「배비장전의 주제에 대하여」, 『진단학보』 53·54, 진단학회, 1982.
- 김종철,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학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 -----, 『관소리의 정서와 미학 - 창을 잃은 관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6.
- 김진영 외, 『실창 관소리사설집』, 박이정, 2004.
- 김춘택, 『우리나라 고전소설사』, 한길사, 1993.
- 나경운, 「남성혜절 소설의 비판의식 연구: 배비장전· 오유란전· 삼선기의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 문현아, 「19세기 전반 조선의 통치 구조에 관한 연구- 왕과 관료 집단간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 한국사회사학회, 문학과 지성사, 1999.
- 박길희, 「혜절소설에 나타난 기생의 형상」,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2007.
- 박미선, 「오유란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박양리, 「삼선기의 서사방식 연구」, 『문창어문논집』 43, 문창어문학회, 2006.
- 박일용, 「조선후기 혜절소설의 변이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상, 하)」, 『한국학보』 51·52, 일지사, 1988.
- 박철암, 「오유란전과 배비장전의 비교연구: 혜절 양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 송현호, 『한국현대소설론』, 민지사, 2000.
-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8.
- 신영주, 「정향전연구」, 『인문과학연구』 3,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

- 구소, 1995.
- 신은경, 『고전시 다시 읽기』, 보고사, 1997.
 - 신응교, 「고소설의 호색형 인물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 신해진,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 여세주, 『남성혜절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 -----, 「조선조 남성혜절소설의 형성과 변이양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0.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고려-조선 전기 중인연구』, 신서원, 2002.
 - 염재규, 「삼전기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7.
 - 오희정, 「정향전의 구조와 인물 성격」,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7.
 - -----, 「체계형 소설의 형성 배경과 유형적 특성」,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6.
 - 우창호, 「조선후기 세태소설의 개념과 그 성격」, 『문학과 언어』 17,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6.
 - 유은숙, 「배비장전 연구: 인물의 성격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윤풍광,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난 풍자성 고찰: 배비장전, 오유란전, 이춘풍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 이석래, 「배비장전의 풍자구조」,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일조각, 1978.
 - 이상택, 『한국고전소설의 이론』 1, 새문사, 2003.
 - 이영애, 「남성혜절형 설화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 이원수, 『고전소설 작품세계의 실상』,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 「남성혜절설화의 실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21, 국어교육학회, 1989.
 - 이종록, 「정향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 이현정, 「19세기 초 세태소설연구- 종옥전과 오유란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이회권, 『조선후기 지방통치 행정연구』, 집문당, 1999.
- 장덕순, 『한국 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 정약용, 『여유당전서』 1, 다산학회, 경인문화사, 1970.
- 정옥자, 『조선후기 중인문화 연구』, 일지사, 2003.
- 정병현 · 이지영, 『새즈문본 흥부전 · 배비장전』, 생각나라, 2000.
- 정상진, 『한국고전소설연구』, 삼지원, 2000.
- 정선희, 「중옥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 정승모, 「조선 후기 사회사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와 역사』 52, 한국사회사학회, 1997.
- 정승열, 「배비장전연구: 희극적 상황 중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 정양 · 최동현, 『판소리의 바탕과 아름다움』, 인동, 1999.
- 정은혜, 「정향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대학원, 1991.
- 정충권, 「배비장전 재고」, 『고전문학과 교육』 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조광국, 『한국문화와 기녀』, 월인, 2004.
- -----,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 차선영, 「오유란전의 세태소설적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 2000.
- 한국소설학회,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3, 어문각, 1992.
- 한은경, 「판소리계 소설의 주변 인물 연구 : 열녀춘향수절가 · 심청전 · 흥부전 · 배비장전」,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한흥기, 「배비장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1980.
- 한효석, 「배비장전의 풍자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 황지웅, 「삼선기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ABSTRACT

A Study on Pattern of Forgoing and Background of <Baebijangjeon>

Hong, Jin Jo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Baebijangjeon> is a literary work of which possibility to convert to a novel version from oral literature tale collections has been a frequent topic so far. A narrative form about a man who forgoes his integr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widely used not only in orally handed down tales, but also in pansori and novels. In general, this type of narrative tells us a story about a noble man who fights not to be attracted by the charms of a woman, but an official dancing girl works with other people around him and finally causes him to forgo his integrity, making him shameful.

As one of the major works about a man who forgoes his integrity, <Baebijangjeon> has been studied mainly in terms of satire, plot, and characte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Baebijangjeon> focusing on how main characters are forgoing their integrity, going beyond limits of previous studies. The study also investigated how this work was form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former two-class social system was subcategorized into the nobility, middle class, merchants, and low class. The nobility was further divided into subclasses due to the

conflicts of the ruling system, resulting in a bipolar system of the upper class consisting of the class having power and collapsed noblemen. Some of the nobility suffered the total collapse of their social status. In addition, the middle class as intellectuals emerged, with a similar social status with the ruling class Sadaebu. As the middle class working at a lower level of the government or working as a professional began to emerge, nobles felt a sense of crisis about their status and abused their power against the middle class, compensating their economic deficiency, sense of social loss and justifying their dogmatic decision. As we see in *Bijang*, a junior clerk of the government, the middle class in this work appears to be a corrupt official enough for us to think that they are far from the image of an intellectual.

<Baebijangjeon> shows us how officials from the upper and middle class were corrupt and how the nobility sought to defend their social status and hide their wrongdoings. In contrast, people from the lower class in this work attempt to disclose the social system among others. That is, the former is represented by Jeju governor, Jeongbijang, and Baebijang, while the latter by Bangja and official dancing girl Aerang. With the change in the social class system, Aerang challenges and resists the nobility, seeking for change in the awareness about official dancing girls, which was impossible under the old system. Finally, she discloses real aspects of Jeongbijang, and Baebijang, which means that social status of the lower class has increased. In short, common people claim their rights.

In addition, we concluded that adoption of tales about a man who forgoes his integrity is in part the background which helped <Baebijangjeon> come into existence. <Gilongjangbaek>, <Balchiseolwha>, and <Migueseolwhat> are main motives of <Baebijangjeon>. This study shows that the plot where a noble man struggles not to be captivated by the charms of a woman, but forgoes his integrity in the end has an effect on tales and novels about a man

who forgoes his integrity because of a woman.

We discussed in full swing how characters in <Baebijangjeon> forgo their integrity, largely dividing into person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Personal factor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hiding their thoughts and revealing hypocrisy. Posing as a male virgin, Baebijang goes away from the right path at a banquet held by Jeju governor. We investigated how Aerang and Bangja reveal hypocrisy of Baebijang representing the bureaucrats. Also in social factors, we looked into an attempt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and break the order and examined how main characters such as Jeju governor, Jeongbijang, and Baebijang forgo their integrity.

As mentioned above, the study examined how <Baebijangjeon> was created and how characters are forgoing their integrity. Characters showed how people in the late Joseon dynasty see the ruling class, and in the sense that <Baebijangjeon> criticizes corrupt bureaucrats at that time and describes the entire culture of the bureaucrats of the time, it is very important in the literature history. The work is noteworthy in the sense that it covers the society of the time and created a literary work of an era which needs a change.